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6년 3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 월간 | 제336호

발행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 서울 미포구 도화동 18-2
전화 702-2233 | 팩스 703-0755 | A/S 066-604-0011
주요 협력: 영광 | www.snu.ac.kr

장학금·졸업식·언론대상... 동창회·모교는 함께 뚝다!



본회는 지난 2월 22일 2006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재학생 1백19명에 2억6천2백97만3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2~3면〉



제60회 졸업식... 새 飛翔의 날개를 펴라

〈관련기사 20~21면〉



관악언론인회, 제3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

〈관련기사 9면〉

관악출추

봄이다. 봄은 봄인데 봄 같지 않은 봄이다. 봄을 맞은 大寒 속에 寒風이 나날이 파다다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망령은 주로 가진 사람들과 엘리트를 주위를 맴돈다. 망령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실제로 보았다는 소문은 무성하다. 망령이 "기방을 칸토 북 잊어놓았다"고 했다고도 하고, "누구와 협을 한져 본격적으로 손 좀 보겠다"고 했다고도 한다.

그런 소문을 듣고 "살마..."라고 말

악언론인회는 20일 중앙일보 文藝虎주필에게 제3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을 시상했다. 서울대 총동창회가 뜻을 모으고 있는 장학금 전반기 모금에는 林光洙총동창회장이 50억을 기부해 앞장 선 가운데 많은 동문들이 큰 뜻을 꾀해 뒤를 잇고 있다. 60년 서울대 역사에 볼 수 없던 뜨거운 열기가 보여지고 있다.

망령에 기워들린 일부 서훈대인들은 어떻게든 말한다. "우리들의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망령을 자처하는 많은 안 하는 게 좋은데... 한나라 때 문인 韓愈는 '原道'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귀신이란 실제로는 없

당당하게 기지개를 펴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말없이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소문이 사실이면 아니든 기지개는 사람들과 나

름대로 우상하고 자처하면 사람들은 망령이 무서워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가진 자가 죄인이고, 무수한 게 죄인면서 망령이 눈을 부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서인지 봄을 맞았는 데도 대가 속에는 망령이 내뿜는 毒氣 같은 것이 사람에게 퍼져 있다. 차가우면 서도 음습한 기운을 뿌리고 있다.

서울대 총동창회는 2월 21일 새로운 동문 6천여 명을 맞았다. 22일에는 우수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서울대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

다. 귀신이 무서워 겁에 질린 사람들이 스스로 해코지를 당할 뿐이다."

우리들의 진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우리는 더 큰 우리들 위한 노력에도 열렬히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당당한 기개로 뜻을 모아 봄의 대가 속에서 망령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서울대인들이다. 대한민국 역사와 교미 고지에서 천년째 펼쳐 일어나 갖가지 망령을 넘어선 사람들만 바로 우리 서울대인들이다. 우리 서울대인들이 당당하게 기지개를 펴면 봄은 언제나 봄 같아질 것이다.

(勝)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鶴洙, 金鶴洙, 朴世熙, 林鍾斗, 李炯均, 南仲九, 金顯錫, 安鶴燮, 丘月燾, 宋鍾燮, 金好俊,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元錫, 李慶衡, 金鍾勳, 金仁基, 徐三植, 李元憲, 高永才, 姜大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琪, 朴聖如, 朴勝俊, 金銀燦,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朴孝宇, 表智媛, 金南柱, 황고영, 金千鶴

“21세기는 革者生存의 시대 ... 부단한 자기혁신 반복하길”

본회·단대 동창회서 2백16명에 장학금 4억3천2백여만원 수여

본회(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2월 22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6년 1학기 장학금 및 특기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모교 재학생 1백19명에게 2억6천2백97만13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기·기금 장학금 수여 현황 3면 참조)

이로써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재학생 97명에게 1억6천9백20만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2006년 1학기 장학금은 총 2백16명에게 4억3천2백17만3천원이 지급됐다. 본회 許 龍서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식사를 통해 장학생들에게 “21세기는 한 명의 뛰어난 인재



林光洙회장 장학금 수여

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革者生存의 시대”라며 “세계 제1의 전문기가 되기 위해 한상 변화에 민감하게 깨달아 자기혁신을 반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교 李鶴仁부총장은 鄭憲龍회장을 대신한 격려사에서 “이제 세계 초일류대학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 서울대인들이 겨레 앞에서 짊어져야 할 사명이 됐다”며 “이를 위해서는 동문 여러분의 더 많은 사랑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학생을 대표해 鄭武容(국사학과 4년)군이 “선배님들의 성상이 담긴 장학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배움에 열중하라는 뜻으로 알고, 공부와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편법이나 부조리를 거부하며 이 겨레와 이 나라의 큰 보람이 되는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되겠다”고 답사했다.

또 이날 추가로 비결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악대 재학생인 李鶴光(성악00-04)등문이 丁素靜(기악99-03)등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가곡 ‘청산에 살리라’를 열창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金龍顯·李海龍·郭永毅·洪性大·鄭忠始·鄭八運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明泰鎭·賀哲圭·申明圭·安聖哲·朴明潤·金秉國이사, 許 瑞사무총장을 비롯해 모교 李鶴仁부총장, 李美娜학술처장, 보건대학원 동창회 姜英求회장, 수학과동창회 金永煥회장, 양지하원 金龍顯(이)사장, 양천장학회 金龍顯(이)사장, 郭炳德연호사, 임성연지니 어링 俞益善사장, 드림위즈 李德源사장, 이수메타시스 金容均대표, 영미테크놀로지 코리아 金榮澤대표, “빛에너지 秋聖玉 특지



모교 李鶴仁부총장이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洪性大특기장학금 수여



모교 李美娜학술처장 장학금 전달



明泰鎭특기장학금 수여



李海龍특기장학금 수여



金龍顯특기장학금 수여



安聖哲 孫潤淑특기장학금 수여



鄭八運·李憲偉특기장학금 수여



鄭忠始특기장학금 수여



孫一根상임부회장 장학금 수여

장학회 秋聖玉이사, 기전외대 김병림 林來圭비서실장, 상양중수공업 李相允전무, 상영무역 尹光圭이사, 한성 鄭憲龍경영기획팀장 등이 참석했다.

각 단대동창회 장학금

각 단과대학(원)동창회 1학기 장학금 수여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대동창회(회장 洪龍顯)=34명:6천6백68만3천원 △법대동창회(회장 丁海昌)=16명:3천1백86만4천원 △치대동창회(회장 白龍之)=4명:1천2백만원 △사대동창회(회장 李相潤)=4명:1천만원 △대학원동창회(회장 金主權)=4명:1천만원 △수의대동창회(회장 鄭英彩)=4명:8백50

만8천원 △약대동창회(회장 李龍金)=7명:7백만원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秉俊)=5명:5백만원 △정보통신(상승정)과정동창회(회장 金龍洙)=1명:3백80만원 △간호대동창회(회장 俞載丁)=5명:3백50만원 △음대동창회(회장대명 李在藏)

=1명:3백34만5천원 △생물대동창회(회장 鄭鳳政)=3명:3백만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郭決鎭)=6명:3백만원 △도시환경교위과정동창회(회장 全洪奎)=3명:1백50만원

1학기 특·기금 장학금 수여 현황

(장학기금 출원순)

장 학 학	설 립 자	수혜자	장 학 금
洪性大특기	洪性大(수학57-63) 상신회원 이사장	林炳南(통계4년) 朴善彬(통계4년) 朴芝源(법학1년) 鄭宗은(인문계열1년) 金孝容(생물과학3년) 李潤泰(사회과학1년)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751,000 2,457,000
亞南특기	金柱澤(법학54일) 영국에크놀로지코리아 회장	李吉女(의학51-57) 金淑蘭(의학1년)	3,360,000
李吉女특기	김영대 총장	洪秀濤(생명과학1년)	2,771,000
吳東英·金慶泰특기	吳東英(조선학공54일)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金慶泰(치의학68-8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沈重賢(치위대학원2년) 金榮澤(치위대학원1년) 申正權(치위대학원4년) 朴榮奎(치위대학원3년)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張世一특기	張世一(전기공학58-68) 일성전자-아랑 회장	鄭錫熙(바이오소재1년) 曹在權(인문계열1년)	2,771,000 2,257,000
朴柱仙특기	朴柱仙(무역59-74) 중국 수산기개 총회	鄭一玉(경제학4년)	1,858,000
韓錫泰특기	故 韓錫泰(간호51-54) 前제헌의원 재정부위원장	金寶權(간호학3년)	2,000,000
鄭八道·李善德특기	鄭八道(AP 1기) 코리안리드컴퍼니 회장 부인 李善德여사	鄭錫熙(경영학4년) 金孝容(경영학3년) 金孝容(경영학3년) 朴正權(경영학3년) 崔 龍(경영학3년)	2,051,000 1,858,000 2,051,000 2,051,000 2,051,000
李金玉·黃海棧특기	黃海棧(토목공학54-60) 동원기(공업사) 회장 부인 故 李金玉여사	鄭正賢(법학1년)	2,051,000
李道衡·李道衡특기	李道衡(농학68-83) 부평문화재단 이사장 장남 李道衡(기계공학64-89) 드림위즈 사장	李 浩(조선학4년)	1,000,000
李道衡특기	李道衡(경영학69-73) 상영무역 사장	申東賢(경영학4년) 朴善彬(기계공학3년) 金在英(법학1년)	1,858,000 2,578,000 2,051,000
鄭錫泰특기	鄭錫泰(화학공학48-52) 신양문화재단 이사장	金榮澤(기계공학 박사) 李道衡(재료공학 석사) 鄭錫泰(컴퓨터공학 석사)	2,000,000 2,000,000 2,000,000
化學科특기	화학과학협회	李善德(화학4년)	2,511,000
金孝容·李道衡특기	金孝容(한글47기) 한국구약회 이사 아들 李道衡(의학77-83) 모교 의대 정통의과 교수	申正權(법학3년) 李道衡(법학4년) 金在英(의학2년) 玄永順(의학2년)	1,000,000 1,000,000 2,000,000 1,000,000
金道衡특기	金道衡(생물교과51-55) 양지화학 이사장	黃海棧(수학1년) 李道衡(화학3년) 金道衡(화학3년)	1,000,000 1,000,000 1,000,000
張敬武특기	故 張敬武(대학원70층) 前모교 지질학과 명예교수	金道衡(지구환경3년) 李道衡(지구환경3년)	1,000,000 1,000,000
林光洙특기	林光洙(기계공학48-52) 인광도전 회장	朴善彬(지구공학3년) 李道衡(통계학3년)	1,500,000 1,500,000
吳仁錫특기	吳仁錫(행정학58-62) Phil Investment 회장	朱世龍(경제학2년)	2,051,000
安道衡·張敬武특기	安道衡(행정학58-63) 유니온테크 회장 부인 張敬武여사	李道衡(법학4년)	1,858,000
鄭錫熙특기	鄭錫熙(화학공학72-78) 오미이 이스트아시아 회장	鄭錫熙(화학3년)	2,155,000
郭永泰특기	郭永泰(토목공학58-60) 도화중학기(공업사) 회장	崔榮澤(지구환경1년)	2,798,000
李海濤특기	李海濤(행정학51-55) 한국우즈비드 회장	金道衡(법학1년)	1,300,000
明泰號특기	明泰號(기계공학48-50) 前송원1집 대표	崔榮澤(기계공학3년)	2,000,000
敎父5父子특기	故 金道衡(법학43-47) 前법제처장·변호사 3남매	李道衡(화학3년)	4,298,000
張學學특기	張學學(토목공학48-50) 삼양장수공업 회장	金正基(지구환경2년) 崔榮澤(지구환경2년)	1,098,000 1,098,000
李元柱기금	李元柱(농정학58-63) 한신기계 도장구 화수회장	林道衡(사회과학3년)	1,000,000
盧佛會기금	지대 종교학회장 출신 동문	李道衡(치위대학원2년)	1,000,000
郭東英특기	郭東英(법학61-65) 변호사	金榮泰(산업과학4년)	2,511,000
李道衡·鄭錫熙특기	李道衡(행정학53-57) 변호사 부인 鄭錫熙여사	曹正權(생물과학4년)	1,500,000
數學科특기	수학과동창회	玄敏賢(수리과학4년) 洪性大(수리과학4년) 李道衡(수리과학4년)	1,000,000 1,000,000 1,000,000
金道衡특기	金道衡(경대원68-70) 양정화학회 이사장	鄭錫熙(의학 박사)	2,000,000



제8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수상자 결정

올해 '해외상' 신설...3월 17일 총회서 시상

관악대상운영위원회(위원장孫一根)는 지난 2월 28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19층 목련실에서 관악대상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8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참여 부문에 미국 캘리포니아 New Pride Group 金勝宗(경제59-63) 회장, 협덕 부문에 삼안코퍼레이션 金燦珠(토목46-50) 회장, 영광 부문에 가천 의과대학 趙長熙(전지55-60) 뇌과학연구소장을 선정했다. 또 올해부터 해외상을 신설해 재비동창회 吳興祚(치의학56-61) 명예회장을 수상자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후보자 접수에 마감을 결과

지난해 추천된 12명(운영규정 제7조 3항에 의거 전년도 후보자 중 수상지 못한 후보자는 자동 추천)

참여상 金殷宗동문

협덕상 金燦珠동문

영광상 趙長熙동문

해외상 吳興祚동문

을 포함한 총 19명의 동문이 관악대상 후보에 올라 장시간의 논의 끝에 4명의 동문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해외상은 외국 거주 동문들의 관악대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해외 동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날 운영규정(3조 시상종류)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이 상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기존의 3개상에 비견되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해외 동문에 3년 주기로 수여할 수 있다.

이날 모임에는 林光洙회장, 孫一根운영위원장, 白金基·尹慶燾·韓斗綱·朴世熙·金燦珠·朴英俊·許璠운영위원이 참석했다. 李吉女·金哲珠·閔孝駿·洪性大·孫京禧·李炯均·朴柱仙·金仁奎·李美娜운영위원은 위임장으로 대신했다.

시상식은 오는 3월 17일 오후 6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南)

동문 작품 시상 전시회



"Landscape", Mixed Media, 93x62cm, 2004.

李貞林 作

<작가약력>

- ▲73~77년 모교 회화과 졸업
- ▲83년 인간 자연전
- ▲84년 젊은 가을·도당전
- ▲84~85년 제3회대미술제
- ▲88년 종이소형전, 허허동인전, 도화갤러리 개관기념 순회전
- ▲89년 비평전 국제 현대미술전
- ▲90~04년 현대미술전
- ▲90~05년 그림 양모전
- ▲개인전 6회

2006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7일(금)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4장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 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006년 3월 17일(금)
오후 6시 30분

◆장 소: 롯데호텔 (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내 용:

- ① 제8회 서울대총동창회 淸正大實 시상
- ②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 사업계획 보고

③ 임원 개선

④ 기타 안건 상의

◆회 비: 없음.

동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동창회 148차·관악회 95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光洙

◆트리니티광장

요즘 언론현장에서는 인쇄매체, 특히 종이 신문의 위기에 대해 여러차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멀티미디어시대의 만개와 더불어 영상매체가 활기를 띠는 한편으로 종이 신문, 종이 잡지 등 종이매체가 사양길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사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과 관련한 각종 세미나 등에서는 '종이 신문의 위기,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할 것인가'가 주된 논제가 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각 신문사에서는 신문 부수가 줄어 들고, 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또한 해달의 어려움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기구개편과 구조조정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종이 신문은 별 불명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속보성이나, 의제설정 역량에 있어서도 종이 신문은 이미 방송과 인터넷 매체에 비해 과거의 영광을 넘겨줬다는 분석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신세대들이 종이 신문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어 종이 신문의 앞날은 더욱 암담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종이 신문은 세월이 흘러 갈수록 차츰

태되고 끝내는 종말의 세기를 맞이할 것인가.

대중매체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새로운 매체, 즉 뉴미디어가 탄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구 매체, 즉 전통적인 매체가 쇠퇴해리라고 믿었다. 라디오가 등장했을 때 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텔레비전이 모습을

그래도 '종이 신문'이다

李炯均

한국신문방송언론협회 회장

본보 논설위원



드러났을 때에는 라디오 청취자와 영화관객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케이블 텔레비전과 위성방송이 등장한 후에는 지상파방송이 쇠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들은 모두 틀렸다. 라디오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더욱 융성했으며, 텔레비전과 함께 라디오

는 FM방송을 통한 교통방송과 종교방송, 음악방송 등 각종 차별화된 방송과 승용차의 대대적인 보급으로 요즘 와서 더욱 많은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수백 개의 채널을 가진 케이블 텔레비전과 방송 없이 전파를 쏘아대는 위성방송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텔레비전은 안방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코너를 사람의 발을 받고 있다. 오히려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DMB의 보급으로 그 위력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영화관객도 한 편에 1천여명을 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미 10년 전에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종이 신문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CNN출신자인 미디어 황제 테드 터너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취소하기까지 했다.

그렇다. 종이 신문이 좀 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기는 해도 대중매체의 역사를 감안하면 영상매체와 더불어 공존해 나갈 것으로 예측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사라지던 고전인 전파와는 달리 기록성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종이 신문은 활자의 마력을 잊지 못하는 현대인들에 의해 더욱 발전해 나간다고 본다.

신중매체 등으로 여겼을 때도 종이 신문은 "신문에 없던데..."라는 말이 엄중하는 한 오래도록 인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동문칼럼

서울대 憲政총장이 지난 1월 23일 "악법도 법이다"라 했다. 오는 5월 10일에 실시될 차기 서울대 총장선거의 판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심정을 언론에 밝히면서 나온 말이다. 지난해 5월에 개정한 교육공무원법이 그렇게 되도록 된 있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생각에서 교육자책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憲政장은 정부의 정책에 자주 과감하게 맞서오던 평소의 그 답지 않게 나약하게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 이미 현재에 제기해 놓은 개정 교육공무원법의 위헌여부나 효력정지 여부를 현재가 하위법리 결정하다"라고 "직선제 총장선거를 선관위에 맡기도록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소리는 변함이 없다"고 한 것 등을 보면 그 반대로 비쳐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악법도 법"이라면서 독배를 들었다는 서양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2천4백여 년전 아테네에서 젊은 제자들을 돌고 다니다 당시 그리스의 직접민주정치를 비판했다. 20살 이상의 성인 시민권자(여자와 노예 제외)만 어중이떠중이라도 추첨으로 5백명의 평의회를 세우고 시민총회라는 국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직접민주정치는 衆議政治(Mobocracy)를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도덕적기를 위해서선 켈학(오늘의 학문)공부를 많이 한 두 세 사람

의 寡頭政治(Oligarchy)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직접민주정치를 줄기엔 일반 시민(국민)들이 좋아할 리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또 신은 하나라는 유일신을 주창했다. 사람의 신, 전쟁의 신, 바다의 신 등의 다신을 믿던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종교관에 정면으로 배치됐다. 결국 요즘 말로 반 체제인사, 반 종교인사로 몰리게 된다. 그제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존경받는 철학자로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따랐다.

권력 쪽에서 미처 못해 "청년들을 부패시켰다"는 혐의로 구속은 됐지만 한 판부터 다루지는 못했다. "중우정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유일신일 수도 있다" 정도를 그 주장을 조금 누그

없이 교도소를 나와 국외로 탈출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라고 예감했다. 소크라테스는 이마지 결단코 거절했다. "불의에 맞서지 않고 왜 비겁하게 도망간단 말인가. 실정법이 나를 처형하게 해 왔다면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어. 독배를 가져 오라" 해서 대언히 마시고 갔다.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면서 독배를 든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랬다면 자신의 소신을 굽히고 악법과 타협해서 목숨을 건졌어야 했다. 그러나 그 악법을 거부하는 가장 극명한 방법으로는 독배를 든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후세사람들이 독배를 잘못 해석해서 만들어 낸 말일뿐이다. 제자 플라톤이 사후에

있는 것은 과거 유신과 권위주의 시대의 준법정신 교육에 무리하게 따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시지탄이라 할 정도로 몰다.

그러나 이 의견에도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악법이라도 그것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개폐되기 전까지는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 거부나 비합법적인 개폐투쟁은 위법으로 다스려지게 된다. 비록 국민 저항권·혁명적 저항의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일단 불법이 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악법도 일단 법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의견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악법은 법이 아니니까 이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까지 발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은 내놓지 않아야 한다. 또 더 큰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현재가 그런 의견을 내놓은 데 있다.

그렇다면 이번 총장선거 판리문제에 대한 憲政총장의 대응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잘못 알고 있는 대로 악법도 법이니까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제대로 알게 된 대로 자라나 목숨을 걸고라도 거부 투쟁을 할 사안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잘 알게 된 소크라테스의 존경선으로 나가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다. 한 단계로서는 일단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李清洙

(정치59-63)

관정 이종환교육재단 상임고문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소크라테스는 악법을 거부했다

려뜨리기만 해도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타협을 단호히 거부했다. 자신의 신념과 정의와 진리를 권력과 불의와 악법 앞에 단 한 치도 굽힐 수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가련 처형이 명약관화했다.

제자들이 마지막 구명수단을 썼다. 교도관들을 매수했다. "스승님, 0월 0일 0시에 감방 문을 나서기만 하십시오, 아무런 제지

은 '대화'의 크리톤이나 피톤 등 어느 편이든 그렇게 직접 한 말은 없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고 한 말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일부 중학교교과 역사교과서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면서 독배를 들었다"는 일화를 가르치고

동문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 동문 기고: 생활 속에서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 잊을 수 없는 사건 등 동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2백자 원고지 8매 또는 18매 분량으로 매달 만일까지.
- 원고기 채택된 본회는 신문을 보내드립니다.

- 서울대 가족: 형제, 자녀, 친척 등을 포함해 동문 5명 이상인 가족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요. 사진과 함께 추억이 담긴한 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 주소가 변경된 동문에서는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면 바랍니다. 매달 5일 이전에 알려 주시면 그 달 동문회보부터 변경된 주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702-2233, 팩스 703-0755, 이메일 snua@korea.com)

장학빌딩을 향한 뜨거운 정성이 강물처럼 ...

삼양사 金相廈회장 10억원 쾌척

지난 2월 16일 삼양사 金相廈(정지45-49)회장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 3년 내에 완납하기로 했다.

金회장은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많은 동문들께서 너무나도 열성적으로 장학빌딩 건립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데에 감동받아 동창회를 오랫동안 지켜본 동문으로서

보탬이 돼야겠다고 생각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1924년 국내 최초의 근대적인 기업형 농장으로 출발한 삼양그룹을 지난 반세기동안 이끌어온 金회장은 각종 경제단체 및 기관대표를 자했으며,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네 번이나 연임하며 우리나라 경제계 발전과 화합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지난 1980년

부터 2000년까지 본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金회장이 출연하는 기금은 장학빌딩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을 통



삼양사 金相廈회장(사진 좌)이 본회 林光洙회장에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0억원 약정서를 전달했다.

해 ‘金相廈특수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全東龍대표 5천만원

지난 2월 16일 한국양돈산업 全東龍(수의52-56)대표(사진)가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5천



만원 출연하기로 약정, 1천만원을 쾌척했으며 ‘全東龍특수장학회’ 명의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南正鉉회장 2천만원 추가

지난해 11월 23일 대우엔지니어링 南正鉉(건축57-61 공대동창회장)회장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출연한 데 이어 2월 16일 추가로 2천만원을 보내와 ‘南正鉉특수장학회’ 명의로 총 3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운영하게 됐다.

동문 4명 1천만원씩

지난 2월 8일부터 25일까지 4명의 동문이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본회에서 1천만원씩을 출연

金在百이사장 2천만원

지난 2월 25일 대산의료재단

할 예정이다.

10여 년간 수의대동창회장을 지내고 현재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동본은 “좀 더 뜻 있게 모교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싶어 출연하기로 했다”며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나 여건이 마련된다면 추후 기금을 더 기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린장학회 5천만원

지난 2월 8일 모교 농학과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그린장학회’가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 3천만원을 보내왔다.

회장을 맡고 있는 金奎鎭(농학53-57)동문은 “대학 2학년 때 동기 9명이 의기투합해 장학회를 설립하게 됐고 올해까지 39년째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월 중 나머지 2천만원을 완납하기로 한 그린장학회는 장학빌딩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모교 농생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는 약정했다.

출연 명단은 다음과 같다.
△申允植(사학55-59)한국유비쿼터스농촌포럼 공동대표 △金周奂(토목57-61)내경엔지니어링 회장 △金熙鎭(약학64-71)마침산사 사장 △李奎奎(치의학78-84)영지파의원 원장(5백만원씩 분할 납부)

기금을 출연한 동문은 개인 명의의 기금장학회를 설립하게 되며, 장학빌딩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表)



장학빌딩 건립 모금운동

서울대인은 벽돌 한 장 쌓는 정성으로

모금 개요

■모금 현황

- 회관 건립 소요 자금 총 3백여천 중 2백25억원 확보
(동창회 기금 1백여천, 양광수 회장 50억원, 김상하 고문 10억원, 홍성태 상임이사 10억원, 신병규 이사 15억원, 오동영·김관숙 부회장 10억원, 백영준 부회장 10억원, 김형주 동문 10억원, 김근호 동문 10억원 출연)
- 향후 모금 목표 - 75억원

■모금 방법

- 직접 납부 또는 약정 (5년 분할 납부 가능)
- 1천만원부터 기금장학회 설립
- 5천만원부터 특수장학회 설립
- 바둑돌 출연 가능
- 기부·증여·유증에 의한 출연 환영 (현금·예금·부동산·유가증권 등)

■기금 및 특수장학회 설립 내용

- 은행금리 이상의 이자 지급 - 개별 장학금으로 관리
- 출연자가 장학금 지칭
- 해외거주 동문 출연 환영 - 출연자가 장학금을 지칭(타대별 가능)

출연자에 대한 예우

- 10억원 이상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직인, 장학빌딩 연호실 및 회의실, 예식장 대관 무대, 특수장학회 설립 및 개관비 관리
- 5억원 이상 순명 동판(조·본인) 설치 및 해당 층을 출연자의 층으로 명명,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직인, 장학빌딩 연호실 및 회의실, 예식장 대관 무대, 특수장학회 설립 및 개관비 관리
- 5,000만원 이상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직인, 장학빌딩 연호실 및 식당, 회의실 이용시 할인, 특수장학회 설립 및 개관비 관리
- 1,000만원 이상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직인, 장학빌딩 연호실 및 식당, 회의실 이용시 할인, 기금장학회 설립 및 개관비 관리
- 10만원 이상 장학빌딩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직인



모교 총장, 장학재단 대표 초청 간담회 열어 장학금 현황 논의

모교는 지난 2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총장공관 홀에서 교외장학재단 대표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孫一根(재단법인 관악회)상임부회장, 단암산업 李瑞瑞(단암장학재단) 회장, 한국학술진흥재단 許祥熙(이 사장, 동부재단 金熙鎭(동부문화재단) 부사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교외장학재단 대표와 모교 鄭道憲

총장 내의, 李美善(학재청장) 등이 함께 했다.

鄭道憲총장은 “최근 개편된 세계 대학 총장회의에 참석, 높아진 서울대의 위상을 실감하고 왔다”며 “그동안 모교는 소수정예교육과 국제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학부 재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원생들에게는 더 많은 장학제

단의 지원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연말재단 장학생 이상복(경영학과) 군과 동부문화재단 장학생 하 진(식품영양학과)장이 장학재단 대표들에게

감사의 글을 낭독했다.

이어 朱大漢총장부처장이 그동안의 모교 발전상, 재학생과 대학원생의 장학금 비율 등을 보고했다.

교외장학재단 대표들은 모교의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모교의 비전과 재정적 필요에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됐다. 특히 이들은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임시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모교가 그동안 교외장학재단을 통해 모교 발전의 기틀이 된 데 대한 감사와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로 됐다. (亨)



林光洙회장



申明珪이사



金相康고문



金明珠동문



吳東英동문



金明珠부회장



郭永福부회장



洪性大부회장



金相康동문



申明珪고문



崔惠康동문



故 吳惠康동문

장학빌딩 건립기금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농협 069-01-272391 / 조흥은행 397-01-100736 [예금주 : (재)관악회]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54졸)

◆10억원

△곽영필(토목공학56-60)

△김상하(정치학45-49)

△김영주(토목공학46-50)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홍성대(수학57-63)

◆2억원

△강신호(의학48-52)

◆1억원

△최오영원(섬유공학67-71)

△최희장(섬유공학58-64)

◆5천만원

△농대 그린장학회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정원(자원공학67졸)

△이종원(경제학50-65)

△전동용(수의학52-56)

△정재봉(사회사업60-64)

◆3천만원

△남정현(건축학57-61)

△유석홍(무역61-65)

△박영희(기약70졸)

◆2천만원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상학66-70)

△김재백(약학52-56)

◆1천80만원

△사범대(의학60졸)

△조낙규(약학58-62)

◆1천만원

△강용현(법학71-78)

△관학용(불어불문58-63)

△김기훈(법학58-62)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윤중(약학64-71)

△김윤택(경제학68-70)

△김종원(경제학55-59)

△김주환(토목공학57-61)

△남진규(기계공학61-65)

△남정현(건축학57-61)

△박영학(영어교육61-65)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55-59)

△안 훈(수의학53-57)

△양배덕(전기공학57-61)

△오용섭(인학60-66)

△윤재국(경제학45-51)

△윤영석(경제학58-64)

△이경호(행정학61-65)

△이병재(경제학69졸)

△이병철(화학71졸)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장무환(경제학45-51)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선철(사회교육75-79)

△하영기(정치학44-48)

△황경로(AMP 11기)

◆3백만원

△하재규(농학53-57)

◆2백만원

△이종순(법학57-61)

◆1백만원

△김홍섭(화학공학59-63)

△김연호(화학공학71-75)

△이호인(응용화학66-70)

△조연규(생물학48-52)

△최동식(법학76-80)

△최중운(의학77-83)

◆50만원

△박안세(약학48-52)

△유성삼(기계공학59-65)

△이문주(간호학90-94)

△정성호(사범학81-85)

◆30만원

△김유원(신대원72-74)

△서득식(농양사학69-73)

△연기호(행정학67-70)

△유기수(물리학53-57)

△유기홍(법학58-64)
△박준국(식물학64-68)

◆20만원

△권기술(AMP 9기)

△김광순(약학59-63)

△김일용(HMP 6기)

△박철근(법학55-59)

△신석우(보내원65-67)

△신한용(농학59-63)

△유병환(기계공학56-61)

△이재현(법학52-56)

△최 일(대학원72졸)

△한정걸(농생물학63-70)

△한소환(정치학57-61)

◆15만원

△김명훈(교육학49-58)

◆12만원

△정수삼(인학60-65)

◆10만원

△노다루미호(언어교육원)

△강인현(행정학56-62)

△고병현(기계공학75졸)

△김덕창(중어중문59-63)

△김병익(정치학57-61)

△김재호(조선공학70-74)

△김정기(해양학83-87)

△김정기(경제학72-76)

△김종현(법학67-71)

△박정석(농화학52-56)

△박부찬(행정학56-60)

△박준호(경영학96-00)

△박중대(상학49-57)

△방기범(기계설계84-88)

△서광석(정치학51-55)

△안동만(건축학69-73)

△양태운(iLP 4기)

△우성만(법학76-80)

△유신호(법학72-76)

△이관호(농학62-68)

△이광수(약학63-68)

△이규남(수의학61-65)

△이기상(의학73-79)

△이동호(교육학59-63)

△이성배(외교학61-65)

△이재철(수의학52-56)

△이주성(대학원62-65)

△이희순(상학55-61)

△임경순(조선학54-58)

△전관우(경제학69-73)

△정건용(치의학52-57)

△정현택(심리학46-49)

△조정규(행정학68-73)

△진성철(사범학82-86)

△최상태(행정학58-64)

△최석진(지리교육63-67)

△최원우(독어독문65-71)

△황재부(경영학62-66)

△황환식(의학58-64)

(2006년 2월 22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중앙일보 文昌克주필 '언론인 대상' 수상

관악언론인회 안희정장 "세계대학 도약에 최선을 다하자"

관악언론인회(회장 안희정)는 지난 2월 20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전·현직 동문 언론인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3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俞靜雅(사회85·89)前KBS아나운서와 成振正(정치86·91)KBS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안희정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는 여러 시련에도 鄭雲龍총장님과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모교의 자율성을 지켜냈으며, 총동창회 역시 정화발전 건립을 위한 기금모금 운동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한 뒤 "우리 언론인들이 앞장서서 모교가 세계대학으로 도약하고, 동문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60년간 모교가 유수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듯이 앞으로도 조국에 대한 더 큰 헌신과 희생은 아끼지 않는 서울대인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 힘이 되고 방패가 되어 항도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교 鄭雲龍총장은 "모교가 더욱 위대한 꿈을 이루는 데 동반자가 되어달라"며 "실수가 있으면 준엄하게 경고하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지혜를 발휘하고, 서울대 스스로가 잘못된 구태를 버리고 도래해 창조적 지식 생산기지로 거듭나고 있음을 설하게 달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중앙일보 文昌克(정치68·72)주필이 제3회



좌로부터 朴東雪·孫一根·李御寧·韓雪史·金在淳·鄭雲龍·林光洙동문, 文昌克동문 부부, 安熙勲·李洪九·金大中·南仲九동문



鄭修仁동문이 축가로 '사랑가'를 열창했다.

'서울대 언론인 대상'을 수상했으며, 상패와 함께 본회에서 지원한 1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심사위원회 劉敏天위원장은 "30여 년간 언론을 천부의 직업으로 삼고 외길을

걸어 왔다는 점, 남다른 통찰력과 학구적 노력으로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언론 구현 및 正義感의 논설로써 사대를 아끼아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文昌克은 그동안 제16회 관훈연론상, 2004년도 한국언론대상, 제9회 삼성연론상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면서 한국언론의 창달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선후배 동문 및 가족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은 文昌克동문은 "오늘의 수상을 채적으로 알고 앞으로 서울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상 소감> 지 참조

이여 본회 金在淳 명예회장은 건

文昌克주필 수상 소감 <요약>

이런 자리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대개 "채적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진부한 얘기를 한다"고 속으로 못 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선 저는 지금 그 분들과 똑같이 그런 진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돌아봐도 도저히 이런 자리에 올라올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제가 모교의 이름을 과전 빛냈는가? 후배들을 위해 희생하는 선배였나? 선배들을 제대로 보시는 후배였나? 모든 조건이 삼을 타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적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언론과 지성'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언론은 시대에 따라 계몽의 역할, 독립운동의 역할, 건국의 역할, 근대화의 역할, 민주화에 대한 역할 등을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언론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언론이 '지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여의 과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포함해 매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는 물론 인터넷 댓글에서 보듯 제마다 주장을 하는데 무엇이 옳은 지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중주의, 포퓰리즘이 판을 칩니다. 일부 언론은 아예 가세하거나 아예 앞장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여기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보, 보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를 해도 지성적인 진보를 해야 하고, 보수를 해도 지성에 바탕을 둔 보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대중은 쉽게 흥분합니다. 대중은 먼 날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대중은 역사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성은 냉철합니다. 먼 날이 보입니다. 역사의 진리를 담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퓰리즘이라는 시대의 풍조를 넘어 자성의 언론을 만들 어갈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서울대 동문 언론인들이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배제에서 "언론의 생명은 '자유'"라고 선포한 뒤 "관악언론인회가 대한민국을 자유를 지키는 힘있는 모임으로 성장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만찬이 끝난 뒤 鄭修仁(국악98·02 모교 석사과정)동문이 훈장가

중 '사랑가'와 '진도아리랑' 등 흥겨운 우리 가락을 선보였다.

한편 이날 관악언론인회에서 준비한 MP3 플레이어와 USB메모리 스틱(1GB용)을 각각 20명의 참석자들에게 감품으로 나눠줬다.

(表)

각 동창회(단체·학과·단과과정) 정기총회 줄이어

약학대학동창회

본회·약대 회장 표창상 수여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金壽)는 지난 2월 24일 서울 태워호텔 본관 레스토랑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약대동창회 李金壽대표회장·李金壽회장, 여자동창회 權善珠회장, 모교 李承基회장·朴政一교무부장, 본회 許 曉士부총장 등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약대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준 진양 재약 崔允煥(약학56-60)회장, 국제약 朴福植(약학57-61)대표, 관인재약 金巨林(약학62-66)부회장, 동아재약 수석부원 韓圭典(약학64-68)부회장, 한국안선 朴濟和(재약68-72)대표, 모교 약대 金秉中(약학68중)·徐永鉅(약학71-75)교수에게 본회 林光洙회장이 총동창회장 표창상을 수여했다.



작로부터 李承基·李金壽·林光洙·李權植등은

또 李金壽회장이 吳世璠(약학61-65)前보스톤대 의대교수, 중앙대 金美瑛(약학64-68)교수, 환인재약 金光洙(약학66-70)회장, 동아재약 金源鎔(재약67-71)사장, 경성대 약대 李龍煥(약학68-72)과장, 金貞淑(약학69-73)前치독의약품안전장,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金惠淑(약학

69-73)원장, 아산기술 康英恩(재약69-73)이사 등 14명의 동문에 약학대학 동창회장 표창상을 전달했다. 한편 이산병원 金在昌(약학52-56)이사는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총회에서 李金壽회장이 연임돼 앞으로 2년간 약학대학동창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치과대학동창회

5회 자랑스러운 동문 2명 시상

치과대학동창회(회장 白鳳之)는 지난 2월 10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과대학에서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제5회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시상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동문 수상자로 치이치과병원 金鐵錫(56-60 본회

부회장)이사장과 환경부 李在禧(73-80)장관이 선정됐다.

李장관의 대학 동기인 치과대학 鄭源義(73-79)회장은 축사를 통해 李장관의 사후 시신기증 소식을 알리며 “다른 어떤 것 보다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李在禧(左)·金鐵錫등은

시상식에 이어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梁源錫(57-61)전임 회장·車惠敏(61-67)전임 여자동창회장·高麗延(73-79)여자동창회장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白鳳之회장은 2006년 사업계획으로 회원명부 발간과 지부 활성화, 모교 지원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과대학동창회는 이날 총회에서 모교를 위해 치과대학 대강당 보수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비동문 교수들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기로 의결했다.



ROTC동문회

정 총서 梁在鉉회장 재선임

ROTC동문회(회장 梁在鉉)는 지난 2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학

군단 대회의실에서 신년하례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동아TV 李泰衡(1기·상학59-63)회장, 李敬在(2기·시학60-64)국회의원, 모교 金東漢(4기·체육교과62-66)교수, 洪孝興(4기·철학62-66)前2군사령관, 모교 李錫仁(8기·응용화학66-70)부총장, 본회 許 璠(정지64-68)사무총장을 비롯해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지난해 1월모교 및 감사·결산 보고 후 임원 개선을 통해 梁在鉉(7기·건축65-69 건원 회장)회장을 민장일치로 재선임했으며 사무총장에 FIM 姜寶根(12기·지원공학70-74)부사장을 선임했다.

梁在鉉회장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발판으로 동호회 및 직능단체 활동을 강화하고 동문회의 위상에 맞는 사회지도자적 역할을 펼쳐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확충에 8천여 동문들이 한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1월 모교 관악캠퍼스 학군 단 건물 리모델링을 하게 됨에 따라 동창회 사무실이 확장 이전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모교의 명예를 빛내달라”고 당부했다.

HPM동창회

北의학대학에 도시 지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동창회(회장 白鳳之)는 지난 2월 20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지난해 보건의료정책 세미나와 농어촌 무류진단봉사에 도움을 준 한국안선 朴濟和(5기·재약68-72)대표와 헬스로드 尹在根(15기·계산통계84-88)이사 등 30여 명의 동문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칙 개정을 통



해 동창회 목적사업 중 동창회 부설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한보연)에 대한 동창회의 재정지원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한보연은 올해 북한의학대학 도서관에 소장과 파부과 등 의화관련 도서 80여 권(3백만원 상당)을 보낼 계획이다.

AMPFRI동창회

개교 60주년 사업 동감

식품 및 외식산업분야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呂熙榮)는 지난 2월 10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06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呂熙榮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회가 된다면 서울대 60주년 기념 행사에 발맞춰 우리 동창회에서도 음식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현재 10여 개 동문 업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신인상 유치를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과정을 소개하고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同會는 올해 친선 골프대회(5월), 뉴스페터 발간(6월·12월), 유명 인사 초청 세미나(7월), 체육대회 및 음식경영연회(9월), 경영대상 시상식(12월)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물리학과동창회

崔德隣회장 선임



물리학과동창회(회장 權善一)는 최근 서울 역삼동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崔德隣(55-59) 명예교수(사진)를 선출했다.

신임 崔회장은 “물리학부 급급조성을 비롯해 동창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崔회장은 한국물리학회, 기초과학지원연구소장, 한국과학기술원 등을 역임했다.

사회학과동창회

趙容直회장 추대



사회학과동창회(회장 趙容直)는 최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크라운CC 趙容直(60-65)교문(사진)을 선출했다.

신임 趙容直회장은 “동문들이 동창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趙회장은 12·14대 국회의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 언론정보학과대학원(홍익문화대학원)동창회장 등을 역임했다.

불문학과동창회

洪志一회장 선출



불어불문학과동창회(회장 元鵬洙)는 지난 2월 22일 서울 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한국방송광고공사 洪志一(70-77)마케팅 이사(사진)를 선출했다.

신임 洪志一회장은 취임사에서 “2년 임기 안에 불문과 60년사를 편찬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졸업 30·20·10주년을 맞은 76·86·96학년 동거회 주관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1백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南〉

마산지부

정중서 장학사업 논의

마산지부동창회(회장 池明澈)는 최근 마산 시내 로얄호텔 무궁화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池明澈(법학61·65 변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모교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한 결과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동문들도 모교 발전을 위해 작은 일부터 찾아서 돕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회의를 통해 동창회는 이제까지 마련된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앞으로 장학사업을 펼치기로 했으며, 젊은 동문들을 이사로 영입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安在謙(의학44-50)순안병원장, 金炯英(경제56-60)前江南병원장, 鄭宗燦(의학56-62)마산복음병원장, 동진분석기술연구소 李祥宰(화학59-63)대표 등 동문 30여 명이 참석했다.

ACAD동창회

월별 행사계획 확정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東俊)는 지난 2월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시카이어룸에서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06년 사업보고를 통해 분기별 회보발간 및 조찬 세미나(3·6·9·10월), 군부대 위문방문(10월), 산업사찰(10월), 자랑스러운 국가정책인 대상 시상식(11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1월에 정기총회를 열고 17대 회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대 관악동문회

제1회 실내악 연주회 열어

음악대학 관악동문회(회장 朴正浩)는 지난 2월 7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제1회 실내악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주회는 트럼펫 앙상블, 타악기 앙상블, 여음 목관 5중주 등 총 5개 팀 4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했다.

尹旺老(기악82·86)총무는 "2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동문교향악단 연주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내악 연주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동문 선·후



의과대학동창회

함춘기상에 俞在唐동문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耀益)가 지난 2월 5일 모교 연건평캠퍼스 함춘회관 강연홀에서 개최한 제23회 친선 바둑대회에서 俞在唐(82·88)동문이 함춘기상 타이틀을 획득했다.

한국기원 高在熙(7단)사범 주판으로 치러진 이날 대회는 총 30명이 참가해 A조(1~2급), B조(3~4급), C조(5급 이하)로 나눠 진행됐다. 4인 1조 풀리그 방식으로 예선을 거쳐 다승자 4명이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린 A조에서는 俞在唐동문이 成昌奎(87-



91)동문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A·B조에서는 金京來(72·80)·李大一(55-61)동문이 각각 1위에 올랐다. 함춘기상에 등극한 俞在唐동문에게는 한국기원의 이바 5단증이 수여됐다.

본 대회에 앞서 진행된 '바둑 퀴즈대회'에서 朴熙弘(64·70)동

문을 비롯해 재학생이 하나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관악동문회(www.snunw.org)는 기악과 관악전공 동문들의 모임으로, 80년대 초반 결성돼 현재 약 4백50여 명의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다.

AFB동창회

패션경영인대상 시상

패션산업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鍾福)는 최근 서울 강남 리츠칼튼호텔 실업홀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패션경영인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2005년 패션경영인대상 수상자로 대술인터내셔널 高美姬(1기)이사·진원인터내셔널 李亨淑(1기)이사·위비스 都相敏(2기)대표·세기빌더너 成泳燦(2기)대표·금광하이텍스 허 찬(3기)대표·이앤디 이두연(3기)대표·우희에페릴 金龍雨(4기)대표·케이제타 심현욱(5기)대표를 선정했다.

AIP동창회

千正培장관 신년특강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趙錦駿)는 최근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동문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겸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법무부 千正培(법학72-76)장관이 '산전법치국가의 구현과 신주류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AIC동창회

신년회서 기수별 공연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日洙)는 최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 1백40여 명이 참석해 기수별로 합창, 동화구연 등을 선보이며 흥겨운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同會는 오는 3월 1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서울대 AIC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南)

대전 관악기우회

작수달에 정기모임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鄭應準) 산하 관악기우회(회장 朴健寧)는 지난 2월 19일 대전시내 돌빛 기원에서 동문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둑대회를 열었다. 이날 한남대 직장팀과 연합팀, 사회계열·자연계열·의대 동문팀 등 총 6개 팀이 단제전을 펼쳐 사회계열 동문들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개인전에서는 安正維(화학82·87·바둑교실 원장)동문이 우승을 거뒀다.

동문들은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작수달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 돌빛 기원에서 정기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朴健寧(의학63·69 서울정형외과의원장)회장이 특별 찬조금을 쾌척했으며, 金星珠(치의학67·74 치과의원장)동문이 점심식사를 후원했다.

대구·경북지부 李弘中회장 (화성산업 사장)

대구·경북지부동창회: 지난 1월 11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임 회장에 화성산업 李弘中(도곡공회67-71)사장을 선출했다. 이에 후회장에 동창회 활동과 개인사 등에 대해 들어왔다.

— 동창회 소개를.

“현재 연락 가능한 회원이 약 1천명 정도 됩니다. 임원진은 30여 명의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돼 있고, 회원 가운데에는 교수, 의사, 관·검사 등 전문직과 장·관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지도층 동문들이 많습니다. 매년 연초에 총회를 겸해서 신년회를 열고 있으며, 소모임으로는 관·교·의인 ‘관·의·회’와 젊은 동문들의 모임인 ‘청관회’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오랫동안 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보

람된 일이 있었나.

“지난 2004년 6월 12일 대구시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렸던 동문 초청 음악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동문과 동문 가족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재웠었지요. 당시 曹東基(형정61 65)대구시장님과 정무부시장님이 金範龍(성원69-73)동문의 도움으로 개관하지 얼마 안된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동문 음악가들의 초초출연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경영하고 계신 화성산업은.

“화성산업은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고



“나이 더 들기 전에 ‘싱글 골퍼’ 도전”

며 금년으로 합계 48년이 되는 사장 기업입니다. 주 업종은 건설과 유통업입니다. 현재 유통분야로는 대구·경북지역에 동아

백화점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건설분야에서는 도곡유원지 전국 40위권으로서 ‘파크리프’이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약 5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어떤 계기로 대구사이클경기연맹 회장을 역임하셨는지.

“체육 단체 가운데 비인이 종목은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구사이클경기연맹 회장도 재임이 있는 기업체 대표가 회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맡아 네 번을 연임 해 8년 동안 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 전공을 살려 지난해 12월 대한토목학회 대구·경북지회 회장으로 선출돼 학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건강을 위해 하고 계신 운동은.

“운동은 다 좋아하는 편이지만 역시 골프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동안 20여 년째 80대 중반의 스코어로 만족해왔는데, 얼마 전 가장 탁월한 경쟁자라고 칭송받는 GF의 적 웰치 자서전을 보고 자극을 받아 더 나이 들기 전에 싱글 골퍼가 돼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후)

산업 동창회장 인터뷰

AFB동창회 金政熙회장 (인스모드플래닝 대표)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AFB)동창회는 지난 12월 9일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단을 출범시켰다. 신임 회장에 인스모드플래닝 金政熙(27기)대표, 수석부회장에 영지퍼펙트 崔炳五(37기)대표, 사무총장에 조인리스 許錫奎(27기)이사가 선출돼 1년간 AFB동창회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최고 패션업계 리더들의 모임을 이끌고 갈 회장장을 만나 향후 계획 등을 들어왔다.

— 소감 한 말씀.

“회원 가운데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부족한 제가 회장이라니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동창회의 존립목적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관련분야의 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다고 보고 대화의 장을 자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2까지 배출된 것으로 하는데.

“2002년에 개설돼 현재 5기까지 1백90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다른 특별과정과 비교해 역사도 짧고 인원도 적은 편이지만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제2회 패션경영인 대상을 시상했고 송년보림을 비롯해 정기 등산·골프 모임 등 취미활동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전임 회장들께서 열심해 해주셨고 회원들이 전일 회비를 내주시는 정도로 높은



“사업확장보다 내실 다지는 한해로”

관심을 보여 주셔서 동창회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과정에 대한 홍보가 미비해 패션업계 리더들 중에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게 큰

아쉬운 점입니다. 국내 대학에서 패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는 우리 과정이 유일하기 때문에 홍보만 조금만 된다면 위상제고와 회원을 모집하는 데 좀 더 수

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올해 사업 계획은.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전년도 사업들을 이어가며 내실을 다질 생각입니다. 특히,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미나 등의 정보교환 모임을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김회장은 동태대 건축학과 졸업 후 건설업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92년 캄보디아 남품업체인 인스모드플래닝을 설립해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최근 모다 제이앤이랑 사회사를 설립해 ‘세렌게티 스포츠’란 브랜드로 전국 골프장 프로샵에 입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자택에 영상편집실을 꾸며 놓을 정도로 미디어 촬영 및 편집에 관심이 많다. 가족으로 인스모드플래닝 강사님 부인과 1남2녀가 있다. (南)

산업 동창회장 인터뷰

IT동창회 金明道회장 (영진로지스틱스 회장)

IT벤처산업과정(ITP)동창회는 지난 12월 8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4대 회장에게 영진로지스틱스 金明道(3기)회장을 민정일씨로 선출했다. 신임 회장장은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회원과 친목도모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동창회 안 정화를 최선으로 다짐했다는 뜻을 밝혔다.

— 소감과 각오 한 마디.

“인품이나 능력 면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시는 것은 동창회의 역사적 짧은 만큼 감도 높은 헌신과 믿음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진행 회장단에서 쌓은 초저 위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동창회를 만들기 하겠습니다.”

— 동창회에 대한 소개를.

“지난 2002년 10월 1기를 배출하고 현재 4기까지 총 1백8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T업계와 타 업종에 종사하는 회원의 비율이 7대 3정도 되며 종사 특성상 30~40대 젊은 층이 많은 편입니다. 수석부회장에 이스타즈인터네셔널 李哲浩(27기)대표와 흥간사장으로 노세드레고로지 安宣源(1기)교님이 분사하고 계십니다. 동창회 활동으로는 정기워크숍과 매년 골프·등산 등의 동창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 오랫동안 임원으로 참여해 오셨는데 문제점이 없나.

“통합명부 발간·취미클럽 활성화”

“4기를 끝으로 학사 임정이 지어지고 있어 회원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가 호전되면 다시 강좌를 열 것으로



보 보됩니다. 오히려 지류상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 올해의 행사계획은.

“우선 전체 동문의 회원명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 골프모임이나 등산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문들을 위해 가정·식자·클럽을 만들어 사친·연락처·탐방·문화산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활성화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증진시켜 보려고 합니다. 회원사 방문을 통해 경영 조언 등의 협력을 구축하고 예상이 허락한다면 해외산악시합, 세미나 등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47년 서울 태생인 김회장은 해외수출업 회를 무역업체인 영진로지스틱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철소연세문화위원회 회장과 발로 스코어클럽 기획운영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안목에 조예가 깊다. 가족으로 부인과 두 아들이 있다. (南)

“올해가 평화적 시위문화 元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물을 찾아서

李 宅 淳

제13대 경찰청장

대 말 : 본보 金龍龍은설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

1945년 창설된 우리 경찰이 올해부터 ‘민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15만 경찰의 수장을 맡게 된 李宅淳(지하학71-75)경찰청장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전된 사회환경을 확립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서 성숙한 민주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청사에서 청정장을 만났다.

— 취임하신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취임 소감을 묻지 않을 수 없군요.

국가적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경찰청장으로 일하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업무로 ‘수사구조 개혁’,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등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내고, 진정한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민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한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여 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치안총수로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아주 집요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정협약, 삼당위원회 등 대국회 활동과 일선 경찰관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경찰에 대한 인망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2월 12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집회’를 일체의 불법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연세강도강간범, 초등생 살인범 등을 연이어 검거하면서 치안정서를 책임진 15만 경찰의 대표로서 큰 보람도 느꼈습니다.

— 모교 법대 출신인 차-龍(5대), 黃龍河(6대) 전임 청장 등 12명의 경찰청장을 비롯해 많은 치안총수를 지켜보셨을 텐데, 직접 치안총수가 되고 나서 어땠습니까. 역대 치안총수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겨우 20여 일이 지나 시점에서 개인의 소회를 이야기하고 과거 선배들이 활동한 시절과 비교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으로서 지역치안을 책임질 때와 비교해 보면 국가 치안행정 전반을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폭넓은 시각과 깊이를 얻고 있다고 봅니다. 큰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

또 세계화·지방화·정보화 등 치안환경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새로운 치안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배가해야 하는 점도 과거와 다르다면 다른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를 감안해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치안성과 창출을 위해

15만 경찰이 궤를 다해 일하겠습니다.

— 행정고시 합격 후 동력지원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1983년 경찰에 입문하셨는데, 그때 치안총수가 돼 나올때의 정서를 펴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저는 지난 76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수습과정을 경기도에서 마치고, 일반부처인 당시 동력지원부에서 약 2년을 근무한 후 경찰에 투신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계급조직의 특성과 목표를 향한 일사불란함이 저의 미래 희망과 가치를 실현하는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법과 원칙 바로 서는 성숙한 민주질서 확립 치안행정에 ‘Speed·Simple·Soft운동’ 도입

생각했습니다. 또 경찰업무 자체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따뜻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치안총수가 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 경찰관 생활을 후회하거나, 경찰 조직에 실망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20여 년의 경찰생활 중 어려웠던 점은.

과거에는 치안업무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격투’라고 여기기할 정도로 힘든 점이 많았습니. 경찰생활을 후회하거나 경찰 조직에 실망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려면 경찰행정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주로 국민을 규제하는 위치에 있다보니, 정책 대립집단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숙한 시민문화의 부재와 ‘공권력 침해사범’, ‘불법폭력시위’의 문제도 결국 그 자체가 고스란히 경찰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집행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만 내세워서 사회적 약자들을 좀 더 따스하게 돌보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취임사에서 일기 중 치안행정 전반에



3S(Simple, Speed, Soft)운동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3S 운동’은 업무를 보다 빠르게(Speed), 간소하게(Simple), 유연하게(Soft) 처리해 치안의 효율성과 국민 만족

편여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 집회시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집회시위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비경찰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와 안전장비 개발 등을 통해 시위대와 경찰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집회시위 매뉴얼을 개발해 경찰의 집회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겠습니다.

— ‘국민생활 안전 확보 100일 계획’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피

부루 느낄 수 있도록 치안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요.

취임사에서도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집행 기관이 아니라 24시간 열려있는 가장 ‘종합적인 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어린이·여성·장애인·피해자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섬세한 보호활동을 전개하며 교통단속, 고소·고발, 민원처리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치안불량률 감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치안행정에 수시로 반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무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의 복지 확대와 인권 보호에도 역점을 두셔야 할텐데.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단, 항상 범죄와 사고에 대처해야 하는 위험한 직무 수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공무원법’ 개정, ‘위험직군 소직보상법’ 제정 등 제도도를 조속히 정비해 복지기반을 확충하고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에 맞게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 전 경찰관 ‘위협수당’ 확대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경찰수령원 증설 및 여성·맞벌이 경찰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신설 등 경찰의 복지 증진을 더욱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많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전·외경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수송버스 개선(좌석수 37~41석 → 34석), 노후

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 운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IT 기술을 이용한 화상회의, 문자메시지 보고 등을 통해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 업무 절차를 바꾸고 불필요한 일 줄이기 및 간소화, 3단계 결재라인 준수, 휴일회의 자양 등 불합리한 형태·관행을 개선함과 아울러 치안활동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참여체제를 확충하고, 부드러운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집단과 점검을 실시해 일회성·전시적 운동이 아닌 지속적·실천적 운동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 올해를 ‘평화적 집회시위문화의元年’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집시법 취지에 어긋나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있는데요.

먼저, 경찰이 ‘평화적 시위문화의元年’을 선포한 것을 집시법 처벌을 강화하고 강력히 진압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평화적 집회시위가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법적 집회시위는 경찰이

✓ 청사 개축 등 복무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15만 경찰에게 형장의 지휘봉이 그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만, 경찰은 지시와 통제에 따른 통령경찰에 걸린 조치가 아니라 상하통리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조직이 돼야 합니다. 제가 종전의 경찰청장 지휘체계는 '우리의 목표'라고 세 목표 정하고 15만 경찰 모두의 '화합'과 '참여'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시와 전달이 아니라 경찰의 양면면접을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자전적인 시스템 속에서 오히려 리더의 뜻과 의지가 직원들에게 제대로 스며들고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취임 후 'One step forward'라는 편지를 전 직원들에게 발송, 치후관과 임신 경찰관들이 출학을 공유하고 임신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지난 2월 20일 임신 경찰관과의 대화를 통해 하심탄환한 이야기를 나누신 것으로 압니다. 요즘 경찰관들과 청장님께서 젊었을 때와 비교해보면 어떻게니까.

요즘 경찰관들은 과거에 비해 학력수준도 높고 실력도 뛰어난 편만 아니라 자기의 소신을 담담하게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무엇보다 상하간에 지휘령을 중시하는 경찰조직의 특성상 불만이 있어도 그냥 속으로 삼키는 정도인데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우리 경찰조직도 수직적 지휘복종의 관계에서 상하통리관계로 바뀌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수평적 조직문화'로 이행하고 있는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찰의 교육, 수사, 조정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하십니까.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검찰의 책임감 있는 수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그 핵심은 현행 경·검각 설명하복식 수사구조를 개혁해, 경찰에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각종 각종의 폭넓은 의견을 겸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경찰 하위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간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하위직 경찰관들을 위해 '대우공무원 수당' 도입, '승진임직자 승진목표제' 등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도 임신 직원들과 생활한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짐으로써 직원들의 불만과 고통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물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치경찰제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어 전국적인 시행은 다소 늦어질 것

으로 예상됩니다만,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 올해 7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처음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각종 언론기관 인터뷰, 학회·토론회 개최, 홍보보로써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왔으며, 경찰청과 기관에서도 자치경찰제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고 특강을 실시해 임신 경찰관들을 통해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확산시킴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올해 최대 현안인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런 선거는 지방의원 유급제, 기초의

정보와 사회의 진전으로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활력있는 조직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상하·동료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열린 조직',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한 걸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부드러운 경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이 곳에 계시면서 '이것만은 꼭 이뤄놓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원익길도 한 걸음부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죠. 처음부터 커다란 프로젝트를 내놓고 거기에 귀속돼 뛰어나가는 방식의 업무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멀어지는 듯 한 발음이 바위

유아·여성·장애인 등 약자 보호활동 펼쳐 서울대인은 주변사람과 공감대 형성해야



원 정당공천제 등의 도입으로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금품·형용제금, 후보비밀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은 물론 당내 경선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6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중이고 선관위·검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했으며 '신고보상금 지급'·'특전제도'(경감까지) 등 단속의 효용성 제고 방안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이나 신분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단속해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부에서는 업무처리나 깔끔하고 치밀하며, 부하직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합리적인 스타일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카리스마가 다소 부족하다. 너무 자기 색깔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은 그동안 계급조직의 특성상 '명분과 지시'에 의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강조돼 왔습니만, 이제는 시대변화에 맞게 리더와 역량의 조직운영의 패러다임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시

를 줄 수 있듯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찰 60주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우리 경찰에게는 지금 무척이나 중요한 많은 현안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광복회원 '수사구조개혁', 올해 사법 실시 예정인 '자치경찰제 도입', 성숙한 민주질서 확립을 위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상하·동료간 격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3S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핵심 정책현안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안전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직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경찰을 애정어린 눈길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취임하시기 전에 李海瓚(이해은)총리와 윤성고(윤성고) 전후배 사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학시절에 후배와 알고 지냈습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서클활동을 하면서 가끔 뵈는 편은 있었습니만, 소속한 서클도 달

랐고 제가 꾸준히 활동을 하지 않아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 부인(권미경 씨)과는 언제 결혼 하셨는지요, 가족(두 딸) 소개 좀 해주십시오.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에 해군 장교로 입대했습니다. 군 복무중에 중대 만, 연애 반으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이화여대에서 언론영상학을 전공하고 현재 증권 광고전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딸은 숙명여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둘 다 아직 미혼입니다.

-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생활을 하고 계신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요즘도 등산을 즐겨 하십니까.

마시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건강관리를 위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까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구보 등을 즐겨 했기 때문에 체력이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30년 서울대인의 한 분으로서 동창회나 동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또 서울대에 들어가 위해 노력한 과정이야말로 지금 이 시간의 자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선각자적 소수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위 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 서울대 폐지된 것은 여기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고개를 숙이고 귀를 기울여 맞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치안총수의 입장에 있다면 아무래도 '경찰'과 '치안'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치안서비스는 단순한 범죄사고 예방과 집회관리에 한정해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도 이야기하니까, 치안이야말로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생활을 뒷받침하는 무형의 사회간접자본(SOC)입니다. '경찰발전'과 '치안확립'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주변의 경찰관과 장·영관들을 중심으로 사방에 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의 힘은 바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과 사회변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동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더욱 실력을 발휘해 자랑스런 서울대인의 명예를 한껏 드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창회보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李宅淳 경찰청장 간

1952년 서울 마포구 아현동 출신으로 용산고교를 졸업하고 모교 문리대 지리학과에 입학,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모교를 졸업한 뒤 동력자원부를 거쳐 1983년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강원도 인제경찰서장, 서울 종로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경찰청 인사교육과장, 경찰청 교육부장, 경찰청 교통관리과, 경부지방경찰청장, 대령관 치안·사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정리=安典實기자)

화제의 동문

민족문화작가회의 鄭壽成 이사장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창작 계속”

“겨레의 뜻으로 기약한 이 날,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볼까는 눈 들어 冠岳을 보게 하라. 민족의 위대한 상속자, 아 기리 빛날 서울대학교 타오르는 빛의 聖殿에 있으니 누가 길을 볼까는 눈 들어 冠岳을 보게 하라.” “여기 타 오르는 빛의 聖殿이” 중에서.

이 시는 우리 동문들에게 기운과 나침반 역할을 해왔으며 동문이면, 아니 모교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다면 읽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 시의 작가는 사만곱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아니다. 이 시를 들을 때마다 작가가 누구인지 궁금증을 가진 동문들도 많았을 것이다. 시인이며 교육자인 鄭壽成(국문64·68 송문고교 교사)동문이 바로 그 주인공.

우리 동문들에게 자강심이 배우고 등을 때마다 통물하게 만드는 이 시는 鄭壽成이 모교 대학원생일 때 쓴 것이다. 당시 공룡동, 동송동 등에 흩어져 있던 모교를 한데 모아 지금의 관악캠퍼스로 이전 계획이 세워졌던 정부는 기공식 때 시를 지어 이 사업을 청송할 사람을 찾던 중 鄭壽成에게 이 일을 맡게 됐다. 그러나 창작 당일 시를 낭송한 것은 鄭壽成이 아닌 바로 학부생 후배였다. 신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대통령 앞에서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인들 사이에서 鄭壽成은 ‘저문 강에 삽을 찌고’라는 시로 더 유명하다. 경제 발전을 독려했던 70년대에 농촌 청년들은 전부 꿈을 갖고 ‘도시로 도시로’를 외치며 농촌을 빠져나갔으니 도시로 간 농촌 청년들은 가난을 경험하게 되고 농촌은 몰락해 가는 현실을 담은 시였다. 이 시는 민주화를 열망하기까지 의식화했던 대학생들에게는 교과서나 다름없었다고.

鄭壽成의 작품 배경에는 아버지가 있다. 책을 좋아했던 유년시절의 鄭壽成, 그러나 책을 사볼 형편도, 볼 책도 마땅치 않았던 시절이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오게 되자 鄭壽成에게 서점 하나를 정해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월급난 아버지는 그 책값을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鄭壽成의 독서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곤 했다. 아버지는 鄭壽成에게 문학의 길을 걷는 데 밑바탕을 마련해 줬고 남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책을 써야겠다는 포부를 갖게 했다.

앞으로 鄭壽成에게 할 일이 더 많이 생겼다. 지난 1월 21일 민족문화작가회의의 이사장에 추대되었기 때문이다. 민족문화작가회의는 현재 가난한 문인과 미정규직으로 고령화된 노동자들, 농민 등을 위해 헌신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시작된 남북작가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남북 문인간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鄭壽成의 창작 활동에는 정년이 없다. 鄭壽成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문학에서 손을 놓을 순 없다고 다짐한다.

(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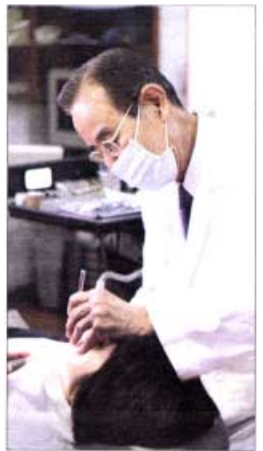
Noblesse Oblige

林昌淵 스마일재단 초대 이사장

1980년 간경화 진단. 모교에서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 숨을 먹던 시간은 줄지 않았다. 얼굴이 검게 변해 ‘사쿠먼스’란 별명이 따라다녔다. 2001년 2월 간경화환수에 빠져 응급실로 옮겨졌다. 얼마 뒤 깨어나지만 다시 혼수에 빠져들기를 몇 차례. 담당 의사의 권유에 따라 간이식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 해 7월 뇌사자의 간을 이식 받은 林昌淵(치의학57·61)동문은 그때부터 “인생을 멈추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林孝俊(치의학92·97)동문이 찾아왔다. “교수님, 사람 나누기 치과의사 모임에 대표를 맡아 주십시오.” 제자를 몇 명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뜻 있는 일이라 흔쾌히 승낙을 했다.

장애인들은 몸과 마음의 장애뿐 아니라 구강 장애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을 위한 무료 치료, 보철 지원, 구강암 부검검진 등의 사업을 펼쳐갔다. 그러나 작은 모임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2003년 2월 뜻 있는 사람 몇 명이 모여 3



재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 재자들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부탁하기가 수 차례. 만원을 받아도 버리를 숙여가며 “교감습니다”를 반복했다. 林昌淵은 “이 일은 목에 걸려있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2003년 창립... 장애인 치과진료 봉사

전~3천5백만원씩 각축해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이름은 스마일재단. 장애인 뿐 아니라 사회에 웃음을 주겠다는 의미에서다. 林昌淵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3년이 흐른 지금, 스마일재단(www.smilefund.org)은 명실상부한 장애인 치의료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옛 경향병원 부지에 세워진 서울치 장애인치과진료센터 건립을 주도했고 학회 정립, 장애인 치과관련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등 장애인 치과진료의 기틀을 마련했다. 치과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林昌淵은 이를 위해 ‘발바닥에 땅이 나도록’ 뛰어 다녔다. 재단법인은 안정적인

지금은 고정적으로 후원하는 치과의사들이 5백명 정도 되고 장애인 치료에 동참하겠다는 지역 의사도 1천여 명이 된다. 5만 원 스케일링 쿠폰을 판매하는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와 ‘자살예방대회’를 통해서도 적지 않은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2월 22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 林昌淵은 요즘 서울 오금동에 마련한 ‘오주치과’에서 환자 진료와 대학교재 집필로 여전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재단 일을 그만두면 조금 한가해 질 줄 알았는데, 할 일이 많군요.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삽니다.” (南)

모교 소식

제60회 학위수여식

학사·석사·박사 총 5천4백47명 배출

鄭총장 “윤리적이고 균형 잡힌 자세 잊지 말자”



모교(총장 鄭雲徵)는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200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煥상임부회장, 尹勳煥부회장, 許重사무총장을 비롯해 모교 李廣宰·趙完基 전임 총장과 鄭雲徵 총장, 李維熙 부총장, 보직교수, 학부모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鄭雲徵九老부처지의 학사보고에 이어 박사 5백28명, 석·박사통합 55명, 석사 1천7백25명, 학사 3천1백39명 등 총 5천4백4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鄭雲徵총장은 석사들 통해 “세계화의 거친 파도가 바깥에서 밀려들고 있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다양한 갈등과 긴장들이 분출하고 있어 졸업생 여러분에게는 전혀 없이 높은 수준의 지혜와 지식 요구된다”고 말하고 “윤리적이고 균형 잡힌 자세가 요청됨을 잊지 말고 눈앞의 성과와 공명심에 현혹돼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필수적이며, 제도와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석사들 통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인정받고 통용되기 위해 知識(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우리 나라는 지금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세계화 정신(Globalization)을 겸비한 인재들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전문적 지식을 마음껏 한양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동시에 우리 서울대인이 먼저 배울고 나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하는 졸업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석사·박사) 교육자로서 이들을 선도했으며, 졸업생들 대

표해 사회대를 수석 졸업한 박사님 중문이 인사를 했다.

최고령 졸업생은 1976년 동국대학 원예학과에 입학한지 30년만에 학사모를 쓰게 된 李光熙(48세)경 남도교국위원장이다. 추위원은 무신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로 1979년 서울교범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모교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2000년 11월 명예회복이 이뤄져 복학했다.

한편 2002년 모교가 처음 실시한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7명 가운데 한창근 동문이 첫 1호로 졸업하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동문은 1997년 전학대 정치외교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장애의 벽을 넘지 못하고 1년반이 취업에 실패했다. 그러다 전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법대 진학을 결심하고 2001년 사경대 법대에 들어갔지만 기숙사도 없고 등록금도 비싸 입학용 포기했다. 이듬해 모교에 입학해 하루 3~4시간 자면서 공부해 매달린 끝에 4년간의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한 동문은 지난 해 12월 26일 101번 경정차를 타고 IBM 재무기획 파트에 당당히 합격했다. 일반 지원처처럼 서류전형과 면접을 치렀고 이후 적성시험에서 우수할 성적을 거뒀다.

각 단과대학별 총장상과 동창회 장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최일민·구유아 △사대대: 박아름·유혜영 △자연대: 정충원·조준일 △간호대: 한정영·고미음 △경영대: 김기록·강성원 △공대: 안영찬·이승아 △농생대: 김경호·진준영 △미대: 최혜민·고세영 △법대: 윤석준·정다영 △사대: 김빛나·김필원 △수문대: 이진경·이창미 △수익대: 이진수·노경환 △의대: 이윤숙·신동형 △음대: 최정현·김윤정 △의대: 김경호·최기라 △치대: 전 휘·이수홍



“동창회 임치 축하합니다”

2005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24일 거행돼 학사 3천1백39명, 석사 1천7백25명, 석·박사통합 55명, 박사 5백28명 등 모두 5천4백47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동창회 총 회원수는 30만9천5백17명(준회원, 단과교과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수 및 동창회 회원수는 표와 같다.

단과대학(원)별 졸업자수

구분	2월 졸업	총 회원
인문대	323	9,787
사회과학대	202	12,714
자연과학대	202	9,962
간호대	47	3,210
생물과학대	167	6,040
공과대	723	38,856
농생명과학대	251	19,502
문리과학대	—	9,731
미술대	91	4,756
법대	190	15,239
사법대	272	24,418
상과대	—	6,723
생물과학대	80	3,965
수문대	45	2,079
의학대	823	5,880
음대	125	6,999
의과대	110	10,580
치과대	116	5,822
내과원	2,117	75,633
경영대학원	—	701
국제대학원	—	853
국제대학원	31	161
간계대학원	44	2,939
신학대학원	—	508
신학대학원	—	264
환경대학원	59	4,033
환경대학원	37	2,136
총계	5,447	282,722
준회원	—	13,338
(특별)회원	997	13,457
총계	6,144	309,517



鄭雲徵총장 졸업식사 (요약)

지팡스라는 졸업생 여러분, 올해로 우리 서울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은 한국사회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온 주역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정을 떠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지팡스라는 서울대인의 일원이 됩니다. 동시에 그 자부심을 구체적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 성취해 나가야 하는 개인적 책무 역시 여러분의 어깨에 주어졌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부단히 정진함으로써 서울대학교 졸업생으로서의 긍지를 더욱 높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화의 거친 파도가 바깥에서 밀려들고 있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다양한 갈등과 긴장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안팎의 위기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21세기형 발전모형을 형성해야 할 큰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들은 전혀 없이 높은 수준의 지혜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창조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고도의 지적 감수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 양한 문제들을 해결해낼 자질을 갖춘 인재라고 확신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큰 배움’을 이루어 가는 대학 본래의 뜻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면, 개인적으로도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그만큼 윤리적이고 균형 잡힌 자세가 요청됨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경쟁에서의 승패와 결과에만 집착할 때 자칫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 쉬운지를 또렷히 목도한 바 있습니다. 눈앞의 성과와 공명심에 현혹되어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빈곤도 용마르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고 부귀와 열에도 바른 길이 없으니 취하지 않는다”고 했던 옛 성현의 “苟且(구급)를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고삐잡고 치우침이 없는 “思慮(시려)의 정신이 충만한 지성인으로서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여러분이 도가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21세기 한국사회가 인문학의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창출과 인재양성의 중추기관인 대학이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 국가의 반열에 올리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도록 헌신적 노력과 혁신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제도와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총장선출 조차 외부의 간섭과 규제받는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대안구현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가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갖추어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졸업생과 동문, 학부모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 여러분은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교 60주년 기념앨범 확정

‘라’ 난개와 햇불 형상 응용

1946년 설립된 모교가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아 기념 앨범(사진)을 발간했다.

지난 2월 9일 모교 UI위원회는 외부 용역업체로부터 4개의 시안을 받아 심의해 鄭雲徵총장이 최종안을 승인했다.

60주년 기념 앨범은 모교의 교조인 화의 형체를 응용해 6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비스듬한 ‘라’의 난개와 타오르는 햇불의 형상을 중의적으로 표현해 21세기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모교를 상징하고 있다. 또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이미지와 활기차고 즐거운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색상을 조합했다. 이번 앨범은 모교가 앞으로 사



용할 배너, 홍보물, 기념품 등에 적용 예정이다.

한편 모교는 60주년 표어를 확정한데, ‘겨레와 함께 미래로’, ‘겨레와 함께 미래로—서울대학교’, ‘겨레와 함께 60년’, ‘겨레와 함께 60년—서울대학교’ 이렇게 네 가지가 선정됐다.

林光洙동창회장 축사 (요지)

최근 몇 년 동안 시대착오적인 폐교론, 논술고사와 출제지도 사제 등의 시련으로 모교가 세간의 이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모교와 동창회원의 성숙한 대응으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전의와 각오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정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모두 상상을 초월하고 희망찬 새해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과를 넘는다는 것은 총동창회가 신시하는 여러 활동들 통해 모태할 같다는 서울대인들이 사제히 뭉치고 단합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점차 모교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본인이 알아낼 수 있는 애교신으로 서서히 융합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랄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교문을 나서자마자 남장 만나게 되는 것은 소록 2만불 사대를 눈앞에 두고도 계속되는 이념적 갈등과 논란, 양극화, 경제불황 등으로 복잡다단하고 불확실한 참담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 60년대의 기복했던 보릿고개를 넘어 눈부신 경제성장과 한류열풍, 디지털정보와 생명과학기술의 패기, 스포츠 강국으로의 부상, 세계 속에 한국기업의 활약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나라 국민은 역시 우수한 민족이라는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도 해줍니다.

우리 나라가 이와 같은 민족적 자긍심과 불굴의 투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인의 선배 서울대인의 헌신적 희생과 봉사가 크나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난 1월 13일 정부에서 SCI에 논문이 1천회 이상 인용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과학'을 선발했는데, 선발된 11명 중 10명이 우리 모교 출신 등이며 이중 6명이 모교 현직 교수님들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은 하루 속히 서울대가 노벨상의 첫 케미스트를 끌어주기를 학수고하고 있으며, 저는 우리 서울대인 과학자 중에서 비서없이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 저는 선배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후배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기본격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 切磋琢磨하는 동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지금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세계화 정신(Globalization)을 겸비한 인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전문가가 대접받고 전문가가 주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전문성 없이는 어느 분야에서도 최고가 될 수 없으며, 전문성이 없는 조직은 시련적이고 능력이 너무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명실한 전문가적 능력이 보람된 일에 쓰여질 때 국가와 개인에게 초래할 엄청난 손실과 사람을 생각해보십시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연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넓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세계에 대해 모르거나 소홀히 하면 언제 낙오될지 모르는 '무용한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전문적 지식을 마음껏 활용할 수 가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우리 서울대인이 먼저 베풀고 나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현하는 졸업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와 '대학생 멘토링' 협약

소외계층 초·중·고생 학습지도

모교 재학생이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에 응하는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및특성 교육)'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鄭永壽총장과 金振杓부총장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협약을 서명했다. 이에 따라 모교 재학생 3백명은

을 4월부터 관악·과 동자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초·중·고교생 1천명에게 기초학습 지도, 보호 및 상담, 인성지도, 재능활동 지원 등 교육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멘토'로 활동하는 재학생들은 '교육실습'이나 '사회봉사' 과목 학점을 인정받게 되며 교통비, 식비, 영화·연극 관람비 등의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상당수 미국 대학 등에서 학업 인정 및 학자금 지원 등과 연계해 시행되고 있으며, 주립대학에서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다.

김부총장은 이번 사업이 '교육인정'과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양극화로 인해 소외계층이 교육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산그룹 연강재단 차용태이사장

모교 병원에 연구비 10억 지원

두산그룹 연강재단(이사장 차용태·사진 좌)이 암 연구 활성화를 위해 모교 병원에 10억 원(원장 威祥熙)에 10억원의 지원을 했다.

지난 2월 17일 모교 병원 제1회 의실에서 4차(의학) 62-68 前도 교병원장이이사장이 威祥熙원장에 의 의원을 전달했다.

지원금 전액은 기초의학, 중앙 예방 등 임상 종양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연강재단

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10억원의 지원을 한다.

차이사장은 "한국이 의과학전국 이 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뿐만 아니라 외국처럼 임상 적용가능한 기초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라며 "이 기부금이 암연구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강재단은 1978년 설립 이래 장학, 학술,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두산의 학술문화재단이다.



생물대 학장에
韓惠顯교수 선임



사범대 학장에
曹永達교수 선임

지난 3월 2일 생화학대학 학장에 소지자대학부 韓惠顯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韓학장은 74년 모교 농과대학 농기정학과 입학, 78년 졸업 후 모교 대학원에서 가정학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90년 모교에 부임, 생화학대학 학대학원 아동가족학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문위원, 한국가족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자연과학대학

교수 승진·정원제 도입

자연과학대학(학장 李相浩)은 교수 승진과 타미다 대당직제 20% 비율을 높이고 70% 제안을 위한 중이 승진하지 못하면 교수에서 해

지난 2월 24일 사범대학 학장에 사회교육과 曹永達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曹학장은 79년 모교 사회교육과에 입학, 83년 졸업한 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95년 모교에 부임, 사대 사회교육과, 중앙교육진흥관, 한국경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승진하는 '교수 승진제'를 처음 도입한다. 또 개별 학부나 연구 단과대 차원에서 교수에 임용하는 '교수 정원 풀(pool)제'도 시행한다.

자연대는 최근 이 방안을 통해 대학 분위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수들의 가치를 겨져 전문 실시설 예정이다.

경영대학

9월 1년제 MBA 개설

경영대학(학장 安相熙)에 1년제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이 생긴 전망이다. 지금까지 MBA 과정은 1년 6개월이나 2년을 다녀야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기업체 등 시장의 수요를 반영, 1년 과정 MBA 운영을 허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 입법예고했다. 경영전문대학원 수여연한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내용과 5년마다 교육연계 취업률 등을 평가, 공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安相熙학장은 "오는 9월부터 1백명 정도의 1년제 MBA를 운영할 것"이라면서 "2년제 MBA는 2007년 3월부터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년제 MBA는 직접 유명 업체로 선발 대상을 제한하고 강의는 영어로 진행하는 실용 교육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교는 이를 위해 현재 15주로 편성된 한 학기 개편을 8주 단위로 재편성, 50명까지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년제 MBA 최초 이수 학점은 48학점으로 정했다. (李)

許昌雲교수 등 27명 정년·3명 명예

지난 2월 28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鄭永壽총장을 비롯한 모교 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7명의 교수 정년식과 소지자대학부 韓惠顯교수, 분야별문헌과 李仁福교수, 의학과 朴容浩교수의 명예퇴직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정년을 맞은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安相熙(고고미술사학)교수, 黃大綱(국어학)교수, 吳炳南(비조)교수, 文正務(언어학)교수, 鄭植俊(경제학)교수, 鄭英(경제학)교수, 卞成(정치학)교수, 金仁(지리)교수,

金鍾漢(물리학)교수, 吳錫學(화학)교수, 鄭昌益(원자핵공학)교수, 金錫鎭(조선해양공학)교수, 曹光洙(조선해양공학)교수, 夫庚士(농생명공학)교수, 蔡永水(식품생신화학)교수, 梁承禧(디자인)교수, 金裕禧(법학)교수, 金仁(교육학)교수, 曹昌慶(특이교육)교수, 李瑞龍(체육교육)교수, 南谷(수의학)교수, 洪潤義(의학)교수, 卞南憲(환경보건학)교수, 鄭文鎭(환경보건학)교수, 崔植謙(환경계획학)교수, 崔植鎭(지도학)교수.

(다음호에 프로그램 게재)

동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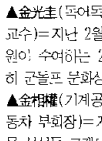
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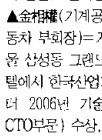
▲朴玄彦(국어교육46-50 WCP PRR 회장)=지난 12월 27일 광주시 남동 삼남교육출판사에서 21세기 한국 문화인쇄화로부터 21세기 한국문화 대상(시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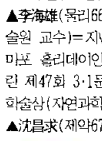
▲金承基(약학55-59 인문대학 회장·분회 부회장·약대동창회장)=지난 2월 21일 서울 한국 언론재단에서 이코노믹 리뷰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기업인 대상' 수상.



▲金光生(국어독문64를 한영대 교수)=지난 2월 11일 독일 하슬름이 수여하는 2006년 '프리드리히 군돌프 문화상' 수상자에 선정.



▲金相權(기계공학66 70 현대자동차 부회장)=지난 2월 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2006년 기술경영인상(대기업 CTO부문) 수상.



▲李海彦(물리66 70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3월 1일 서울 마포 후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열린 제47회 3·1문화상 시상식에서 학술상(자연과학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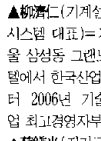
▲沈昌洙(재약67 71 모교 제약학과 교수)=지난 2월 10일 생명약학회로부터 '남양양'에 생명약학 학술상' 수상. 또 22일

대한약사회로부터 약사 글장, 23일 한국신약개발조합으로부터 신약개발 공로상 수상.

▲姜天錫(사회69 76 조선일보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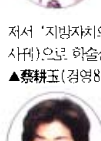
선주간·본보 논설위원)=오는 3월 22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삼성언론재단으로 부터 제10회 삼성언론상(논평·비평부문) 수상.



▲柳善吉(기계설계73-79 이앤이 시스템 대표)=지난 2월 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2006년 기술경영인상(중소기업 최고경영자부문) 수상.



▲韓誠光(지리교육75-79 경원대 교수)=지난 2월 17일 충남대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 또 저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박영사)으로 학술상 수상.



▲蔡精玉(경영86-90 매일경제신문 유통경제부문 차장)=지난 2월 16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한국여기자협회 신년하례회에서 '올해의 여기자상' 수상.



▲李善致(AIP 20기 대일특수강 대표·중앙대 객원 교수)=지난 2월 21일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이코노믹 리뷰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기업인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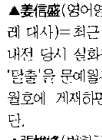


▲金在哲(AMP 4기 前한국무역협회장·동원그룹 회장)=지난 2월 20일 한·전대 자유무역협정

(FTA)협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칠레정부로부터 '베르나르도 오히긴스'(Bernardo O'Higgins) 산업 최고훈장 수훈.

인 사

▲金在鎭(형정51-55 前국회의원·국가조찬기도회 국제위원장·남원방송 회장)=지난 2월 17일 서울 한국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열린 이스라엘법인 세계기독교선도연맹 총회에서 총재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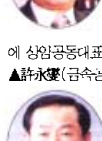
▲姜信藏(영어영문55-60 前주례대 대사)=최근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실향민 돕음 장원소설 '달출'을 문예중앙지 '문학공간' 2월호에 게재하면서 소설가 등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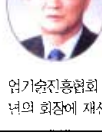
▲張毅雄(법학55-60 사단법인 국학원장·신분공정경영위원장)=지난 2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金成勳(경영제58-63 삼지대 총장)=지난 2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樹木詩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창립총회에 상임공동대표에 선임.



▲許永寒(금속공학60 64 녹신사 회장·분회 부회장)=지난 2월 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총회에서 임기 3년의 회장에 재선임.



▲金光三(물리60입) 前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현대불교신문 사장)=지난 2월 7일 국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安光三(형정64를 前북성산업부장관·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지난 2월 22일 대한변리사회 제33대 회장에 선출.



▲宋錫赫(정지61 65 前순안일보 논설고문·분보 논설위원)=최근 고려대 연운학부 석좌교수에 위촉돼 3월부터 '취재보도인상'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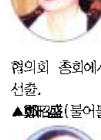
▲安輝濤(고교문류61-67 前고교고교비속사학과 교수·문화재위원장)=지난 3월 1일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에 선임.



▲金花中(간호63-67 前보건복지부장관·모교 보건대학원 교수)=지난 2월 21일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한국여기자협회 회의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에 선출.



▲鄭熙盛(불어불문64 69 단국대 교수·마포니에 회 회장)=지난 2월 21일 서울 예정장 '문학의 집·서울'에서 열린 한국교수자가



회의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선출.



▲韓文熙(국어교과68-72 상명대 교수)=지난 2월 3일 열린 한국프랑스어문교과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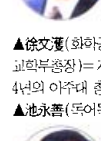
▲金大中(경제66-70 두산중공업 부회장)=지난 2월 23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제17대 회장에 선출.



▲鄭雲集(경제66 70 모교 총장)=지난 2월 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1년의 제36대 회장에 취임.



▲李熙範(전자공학67-71 前전원자원부 장관)=지난 2월 22일 열린 한국무역협회 정기총회에서 제26대 회장에 선출.



▲徐文源(화학공학68 72 아주대 교학부총장)=지난 3월 9일 임기 4년의 아주대 총장에 취임.



▲池永壽(국어독문68-72 前인겨래신문 논설위원·정부공직자윤리위원)=지난 2월 15일 주보스텔총원사에 임명.



▲文昌星(형정68 72 조흥은행 부회장·분회 자금관리운영위원)=지난 2월 22일 신한금융그룹 주주총회에서 통합 신한은행 부회장으로 선임.



▲韓文熙(국어교과68-72 상명대 교수)=지난 2월 3일 열린 한국프랑스어문교과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동문기자 회재추천

대입 사이버테러를 지켜본 뒤의 '쑥쑥함'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이래 그려려니 한다. 고질적인 문제인 악의적인 댓글, 이른바 '악플'에 대해서도 '사이버상인데...'라고 넘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무심했거나 지나치게 관대했다.

그러나 더 이상 외면하고 있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경찰 수사 결과 지난해 12월 28일 대입 원시모집 원서접수 사이트 해킹 사태 이전에 접수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도록 한 1천여 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중 대부분이 수험생이라고 한다. 다 자발적 참여자들이었다. 정도가 심해 일어난 33명 중 단 한 명을 빼곤 모두 원서접수를 한 뒤 바로 사이버테러에 나섰다. 나머지 한 명은 고등학교 1학년이다. 원서를 접수한 오해를 돕기 위해 사이버테러 프로그램용 작동시켰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일을 벌였다. 한 학생은 "경쟁률을 낮춘다는 소리에 재미 삼아 접속했다. 실제 다운로드 줄 붙였다"고 말했다. 원서접수를 위해 친구 두 명과 PC를 샀었던 한 수험생은 접수를 마치자마자 사이버테러에 나섰다. 친구 둘은 옆에서 원서접수기 안 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한 수험생이 경찰의 전화를 받은 뒤 원서

접수 회사에 보낸 e-메일에서 이들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다.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화가 왔었습시다...트래커 공격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고요...그 당시에...여러 사이트를 뚫다가 OO사이트가 다운로드한다는 소리를 듣고...미리 원서접수를 했던 저로서는...그만...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중략) 정말 그 죄가 큼니다...그런 일을 해서 안 되는 데...그만 지만 잘해보자는 생각으로...그런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하 생략)"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대부분 잘못을 쉽게 인정했다"고 봤다. 동생하는 모습이 여러했다. 안타깝다. 안 됐다. 그러나 용서할 때 하더라도 드러난 문제점은 지적해야 한다. 이들이 한 일이 실제 눈에 보였으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대입원서 접수 마지막 날 거의 모든 대학 교문이 잠기거나 접수 창구가 차질됐다. 대다수 수험생은 원문도 모르고 단편적인 정보만 받아 들인 듯하다. 그러나 원서접수를 할 수 있는 대학을 찾아 피 밀리는 진주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과에 예상 경쟁률이 변화가 있을 때도 당연히 합



高貞愛
(제약87-91)
중앙일보
정책실장부 기자

격할 것이라고 여겼던 수험생 중 일부는 쓴 맛을 봤을 것이다.

심한 비아냥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 합격을 위해서 범죄 행위조차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친구에게 갈 만한 피해에 대해 눈감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는 지난해 휴대전화

수능 부정사건도 겪었다.

미국에선 지난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버드·MIT·스탠퍼드·케네디캠퍼스·다트머스대 등 미국 최고 경영대학원이 지원자 2백여 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이들이 자신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인터넷 사이트에 뜬 글대로 입사관리 사이트를 훑쳐보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대부분은 그것이 빈 화면뿐이었는 데도 그랬다. 알았든 몰랐든 해킹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사이트에 접속한 1백19명 전원에 대해 불합격 처리했다. 스탠퍼드(41명)와 MIT(32명) 등도 마찬가지였다. 일각에선 가혹한 조치란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킴 클라크 교수는 "이번 행위는 모든 행위 중 가장 비윤리적이고 국제적인 리더를 배출한다는 우리 학교의 교육목표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MIT 경영대학원 리처드 슈판렌지 교수는 "자신이 나쁜 일을 한다는 걸 몰랐을 리 없다"며 "윤리를 중시하는 우리로서는 용서할 분재"라고 통조했다.

유리 문제에서 우리라고 다를 순 없다. 이제라도 유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과론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도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야 한다. 내 행보 못지 않게 남의 행보 또한 중요하다는 걸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로도 못 배워서 심각한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걱정스럽다.

동문기자 회재추천

두 개의 눈으로 점점의 의도를 풀어내다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닐텐데, 필자는 대학시절 선생님과 교수의 대면이 그리 익숙하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심하게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얼굴이 화끈거리며 말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선생님들과 스스럼없이 점점을 함께 하거나, 별인 없이 연구실에 들러 점점을 나눌 정도의 낙담이 내게는 없다. 아마도 선생님들에게도 내가 그리 살갑게 귀여운 제자는 아니었리라.

얼마 전 대학시절 스승이셨던 안희정(安熙正) 선생(고교미술학과 교수)과 저녁 약속이 있던 날도 그랬던 것 같다. 지난 2월 28일 점점을 맞으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분화부 기자들이 마련한 半 공식적인 자리였다. 반가움과 또 그만큼의 서툰, 동생했던 다른 기자들이 선생님의 회고담을 들으며 즐거워할 동안, 나는 마치 몇 년 전의 대학 강의실에 다시 돌아와 앉아있는 듯한 묘한 느낌으로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었다. 공부하던 대학원 시절, 나는 선생님을 군부에서 차출한 선생님의 말투, 그리고 간혹 가다 들리는 낯익은 어조소리를.

순전히 내 추측일 뿐이지만, 미술사학을 공부하던 대학과 대학원 시절, 나는 선생님을 군부에서 차출한 선생님의 말투, 그리고 간혹 가다 들리는 낯익은 어조소리를.

본 내가 흥미로워했던 분야와 선생님의 전공이 다르기도 했지만, 편에는 선생님의 방식에 나름의 몰반도 있었으니 말이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너무 썩어빠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전개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대중 이런 식의, 어떤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면적은 가져볼 만한 종류의 불만 말이다. 그런 내 속마음을 아셨는지, 한번은 선생님이 이런 충고와 활책을 던지셨다. "할부로 추측하지 말고, 미술사는 그런 학문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말하면,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만 가르치겠다는 엄격한, 그 단호한 원칙에 주욱이 붙어있을까. 나는 좋은 미술사학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잡고 기거했다. 그리고 며칠 전, 다시 만난 나에게 선생님은 조선의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 말마에 이런 말을 하셨다. "관공의 책을 읽고 만 리의 길을 간다(讀萬卷書 行萬里路)."

만 권의 책을 만 리의 길. 물론 선생님의 말씀은 화가들도 지식을 쌓아놓는다는 예기의 와중에 나온 것이었지만 나에게 그 말이 대하시절 들었던 그 한 마디의 장려, 함부로 추측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었다. 한편의 책을 읽고 열 권을 읽은 양 말하지 마



楊孝暉
(고교미술94-98)
MBC 사회부 기자

라, 한 권의 책을 읽었으면 딱 그만큼만 가라고 말이다. 나에게 주어진 한 편의 사랑, 한 시간의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었을 딱 한 번, 그만큼만 쓰고, 그만큼만 판단하라고.

기자가 된지 이제 햇수로 7년. 대학과 대학원을 모두 합친 만큼의 시간이 지났다. 무엇보다 책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리고 절대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되는 기사가 되어 자신을 만났던 제자를 보고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직 모자라다고 안타까워 하셨을까, 아니면 한편으로 흐뭇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얼마 후면 선생님은 오래된 연구실의 문을 잠그고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학교에서 떠날 것이다. 그 작은 방에 쌓여있던 수많은 책들, 당신의 두 눈으로 한 점 한 점 들여보냈을 수많은 그림들에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말이다. 그 그림들은 자신들이 품고 있었던 감정의 의도를 선생님이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할까, 아니면 자신들을 오해하고 과대포장하지 않아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까. 이것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들이 있다. 안희정 선생님의 작은 두 눈 덕분에 헤어질 수 없었던 작품들이 자신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우리에게 풀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공이아무리 한 쪽의 그림이라 해도 제각기 품고 있는 점점의 의도를 풀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다지 상냥하지도, 예의바르지도 못했고, 인내심이 뛰어난지도 못했던 많은 제자를 또한 당신에 우리에게 내보냈던 선의와 열정을 오래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를 포함해서 말이다.

서울대 가족

吳東一 한국작곡가회 상임고문

장녀·큰며느리·손녀 등 3대가 음악 전공

“2남1녀 모두 캠퍼스 커플로 더욱 화목”

지난 2월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지하에 있는 사진관 앞에서는 3대가 동문인 가족이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녀를 기다리던 할아버지는 일찍 온 손자들을 데리고 근처 음악서점에 들렀다. 이윽고 한 손자가 “와, 할아버지가 쓰신 책들 여기 많네요” 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임시·대학교재 베스트셀러인 ‘음악화성학’과 ‘기초화성’, 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3~6차 교육과정), 그리고 ‘강이 풀리면’, ‘고운님 여의왕고’, ‘3월이 가기 전에’ 등 거에 친숙한 가곡을 만든 주인공은 한국작곡가회 상임고문으로 있는 吳東一(작곡54.58.前강원대 음악학과 명예교수)동문이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끊임 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고생해준 건 제 아내입니다. 덕분에 2남1녀 모두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고 있으며, 저는 40년 가까이 음악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었죠. 사진 찍던 날 책방에 꽂혀있는 제 책들을 보며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노래도 작곡했고 교과서도 집필하셨구나! 멋지다!’라고 해줬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 겠죠.”

가남사전을 찍은 후 吳東一·동문은 또 다른 가족 사진을 찍었다. 장녀 吳素蘭(가악81·85 피아노 전공)동문, 오모에 주자인 큰며느리 尹惠恒(가악81·85 KBS교향악단 단원)동문과 손녀인 吳玟貞(가악06임), 이렇게 네 명이 한 자리에 모이니 3대가 음대 동문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집안에 피아노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 큰딸은 자연스레 피아노를 치게 됐고, 손녀는 어느 날 큰며느리가 해외 연주회를 끝내고 오모에를 선물하면서 곧잘 따라다닙니다. 스승이나 다름없는 엄마로부터 전수 받았으니 잘할 수밖에 없죠. 고교시절 각종



앞줄 좌로부터 吳玟貞·尹惠恒동문, 한 명 건너 吳東一·동문, 한 명 건너 吳素蘭동문, 가운데 줄 좌로부터 두 번째 吳素蘭·金文謙동문, 두 명 건너 金榮基동문, 뒷줄 좌로부터 許貞淑·吳承勳동문

콩쿠르에서 입상한 손녀는 손가락 움직이는 게 머느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밖에 장남 吳承勳(법학77·81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성균관대 지적재산권법 교수)·차남 吳承勳(화학공학80·84 SK 대덕기술원 수석연구원)동문을 비롯해 작은며느리 許貞淑(화학교육83·87 前고교 교사)동문, 사위 金榮基(의학77·83 김영기이비인후과 의원 원장)동문 그리고 외손자 金文謙(법학05임)군이 모두 모교 출신이다.

“올래 꿈은 성아가 되는 것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틈만 나면 노래와 하모니카를 불렀고 밤에도 축음을 들어놓은 채 잠이 들곤 했어요. 부친께서 두 살 때 돌아가셔서 형과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고집인 병양을 떠나 경북 영주로 이사를 왔습시다.

사골이라 음악선생도 없는 농업을 다녔는데 그만 병성이 꽤 목이 상했어요. 그래도 음악을 하고 싶어 서울사범학교 음악선생을 찾아가 1년간 작곡을 배워 모교에 입학하게

됐고, 당시 사범학교에 다니던 지금의 아내 ‘金素蘭’여사’를 만나는 행운까지 얻었죠.”

장작을 위해선 하루에 소주 한 병·아침에 반, 저녁 때 반을 마셔야 머리가 맑아지고 낭만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吳東一·동문. 그는 평소에는 묘자를 꼭 눌러쓰고 편안한 옷차림에 배낭 하나를 매고 전국의 명소를 찾아다닌다.

“자연을 밧삼아 길을 걷고,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레 좋은 음악이 떠오르게 됩니다. 올해 가을쯤 제 음악인생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국의 명소·산 찾아 물 따라’라는 제목의 가곡집과 합창곡집을 낼 예정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음원에 준 가족들에게 좋은 노래로 보답해야죠.”

한편 吳東一·동문이 학교에서 부인을 만났듯 자녀들도 대학시절 캠퍼스 커플로 통했다고.

“딸 吳素蘭이와 큰며느리는 올래 동기동창이라 신입생 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그때

吳東一·동문의 서울대 가족

장남
吳承勳(법학77·81)
차남
吳承勳(화학공학80·84)
장녀
吳素蘭(가악81·85)
사위
金榮基(의학77·83)
머느리
尹惠恒(가악81·85)
許貞淑(화학교육83·87)
손녀
吳玟貞(가악06임)
외손자
金文謙(법학05임)

서 큰며느리가 자연스레 집에 놀러오면서 承勳이를 만나게 됐죠. 素蘭은 피아노·전공 여학생들과 의대 남학생들이 함께 간 MT에서 사귀게 됐고, 차남 承勳이와 작은며느리는 대학원 시절 조교 산후해 사이로 알게 돼 일찍 결혼에 골인하게 됐죠.”

어릴 적부터 독서광이었던 장남 吳承勳·동문은 한 가지 일도 하기 싫든 학생들을 가르치며 변호사 활동을 겸하고 있다. 10여년간 판사생활을 한 후 변호사로 전향하게 된 吳承勳·동문은 부친의 글 쓰는 재능을 물려받아서인지 그가 쓴 저작법률 관련 서적 역시 필독서로 읽히고 있으며, 특허법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문도 각종 학회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고.

“차남인 承勳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동안 석유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인 촉매와 공정기술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었는데, 承勳이가 연구팀과 함께 국내 최초로 촉매기술 국산화에 성공했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공정기술을 상용화하는 패기를 이뤘습니다.”

노래에 인가견이 있으며,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등 ‘코 박사’로 해외에서도 의료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사위 金榮基·동문은 인재대외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대치동에 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表)

동문기고

붓글씨와 생활의 멋

인기 있는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가수가 없어서 한창 유행하면 매년도 1년간 지나면 낡은 것이 돼 버리는 게 현대사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천년 전부터 내려 온 붓글씨가 요즘에도 인기가 있다. 왜 그럴까?

백 미터 달리기나 마라톤 같은 기록경기는 10년의 1초 단위로 경쟁하고, 컴퓨터는 그 상위에 있어서 백분의 1초 단위로 경쟁한다. 그런데 가장 느리고도 느린 붓글씨, 옛에서 바라본 담담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붓글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원가 이상하지 않은가?

나이는 사물들만 하는 줄 알았던 붓글씨, 그래서 고리타분하다고 생각되는 붓글씨, 그런데 한창 빠기가 넘쳐 풍광한 젊은 이들 사이에서 붓글씨가 확대되고 있다. 이전 또 무슨 현상인가?

자본주의 사회, 물질만능 사회, 돈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공동,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규정짓는 단어들이다. 이러한 단어들에 비해서 붓글씨는 정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다.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고 생활의 여유를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어딘가 허전한 우리의 정신적인 공허함을 메워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붓글씨를 가까이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붓글씨를 중국에서는 書法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書道라고 부르고 우리 나라에서는 書藝라고 부른다. 이것은 동양 3국 모두가 붓글씨의 정신적인 면을 강조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그런데 이제 볼 때 붓글씨의 현대 사회에서 정신문화의 대표인 붓글씨 인구가 확대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캠프, 테니스, 골프, 등산, 낚시, 스키, 축구, 농구 등 현대사회에서는 취미도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고 수준도 발전해 갔다.

모두 다 활동적이고 스포츠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등 나름대로 장점이

많다. 붓글씨는 정적이고 비활동적이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것처럼 생각된다. 더구나 베풀고 먹, 붓, 종이를 비롯해서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눈도 많이 필요한 재미이다.

아마추어로서 간단한 수준에 오르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출가승보다는 고통과 시련과 인내가 사람을 옥죄는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는 욕구를 많이 받는 것이 붓글씨다.

왜하면 글씨를 제대로 써서 즐거움을 얻는 기회보다는,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柳 熙 根

(사전시84-68)

前전주MBC 사장·

대원콘도 고문

안 되나?” “나는 재주가 없어” “도저히 발전이 안 돼. 당장 그만 뉘어라” 이런 소리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글씨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 정말 희한하다. 사람들은 전사회 장에 나오자 남이 쓴 작품을 보고 내면 “아! 나도 저렇게 쓰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쓸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붓글씨 문화의 전통과 향기가 우리의 정신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은은한 묵향의 정서적인 전근간이 우리의 가슴속 어딘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과 파나는 노력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전사회를 가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비록 아마추어이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인정 받았을 때의 뿌듯함과 자랑스러운 인정 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더구나 붓글씨는 기록으로서 남는다. 자신의 수준이 점점 발전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비교할 수 있고 기록이 남는다는 데 붓글씨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여기저기서 아는 사람들이 “나도 한 작풍 써 달라”는 요구를 받을 때 느끼는 호뭇함은 그동안의 많은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자신의 작품이 아닌 개인의 인생이나 사무실, 회사의 출입문 장면에 걸려 있는 것을 봤을 때의 즐거움이란 상상을 초월한다. 까만 먹을 묻힌 붓으로 하얀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써 나갈 때, 정신은 위축되고 마음은 안정된다.

글씨를 흘려 쓰든 행서체를 쓸 때는 왕희지의 명필을 흉내내고 싶은 욕구가 솟아나고,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힘들게 휘갈겨 쓰든 초서체를 쓸 때는 손과指的 명필을 흉내내고 싶은 충동에 한 평생을 투전한다.

한편이나 등산 같은 동적인 취미에 정적인 붓글씨 취미를 결합한다면 금상첨화다. 그런데 붓글씨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앉은 쪽과 걸으면 산다는 명언이 있다.

붓글씨는 대개 서서 한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끊임없이 움직인다. 또 붓을 손에 쥐고 계속적으로 손놀림을 하나씩 신경을 자극한다. 맨 처음 시작하기 위해 먹은 갈면서 손과 손목과 팔과 어깨를 원 세 없이 움직인다. 결국 온 몸의 혈액순환에 좋다는 얘기다. 정신건강과 육체건강 양쪽으로 좋다는 얘기다.

중국이나 일본에 갈 경우 만일 자신의 작품을 몇 점 가지고 가서 선물하면 대환영을 받는다. 이들은 서예 작품을 귀히 좋아한다. 동양 3국의 문화가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빠르고 작품을 매개체로 해서 대화도 재미있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인과 일본인들과는 서예를 통해서



유인무속회 (商人無俗懷)

생각이 깊고 뜻이 높은 사람은 세속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공감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붓글씨를 하게 되면서 더 가치 있는 일은 단순히 글자를 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태백이나 백낙천과 같은 과거의 유명인사이나 목석들의 훌륭한 시와 문장을 자주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논어나 대하에 나오는 명언들을 접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과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는 모든 세계가 영어권 문화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한자문화도 겸비한다면 동서양을 두루 섭렵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장점이 있다.

신간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金坡成 지음



저자 이수 그록 金坡成 (경성고상2졸 본회 고문) 명예회장은 은행가, 정부의 경제 권력, 기업

인으로 60여 년간 경제계에 몸담아 오면서 우리 경제의 현실을 수십 년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경제계의 산증인이다. 또 일선에서 똘똘한 지금도 여전히 경영 컨설턴트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이다.

金명예회장은 이 책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역사를 돌아보고, 2000년대 들어 우리의 살뜰 경제에 대한 다양한 지표 자료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앞으로 필요한 경제 정책의 대안들이 무엇인지를 연구, 모색했다. (문예당/10,000원)

해결에서 나체로

—姜學彬 옮김



저자 유대

기독교학과 종교철학 교수 역임한姜學彬(철학 55-59) 문예이독일 철학자 귀족 퇴비

트의 저서를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은 19세기의 철학과 문화사가 20세기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책

해결과 과제의 관계에서 시작해 해결의 문화생물, 특히 마르크스와 키아케고이가 해결의 사상을 어떻게 해석 혹은 재해석했는지를 논한다. 또한 이 점과 연결하여 포이어버흐, 슈티르너, 셸링과 니체 등 중요한 20세기 철학자들의 사상과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민음사/27,000원)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朴枝香·金哲·金榮·李榮憲 엮음



그동안 학계에 축적된 해방 전후사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해전사 인식)으로 대표되는 기존 역사서의

지편향적인 역사서술을 바로잡고

보다 다각적이고 실증적으로 우리 역사를 논한 책.

이 책은 일제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일제시대의 문맥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머리말을 포함한 30편의 글과 편집위원의 대담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朴枝香(서양사/71-75 모교 교수), 金哲(연세대 국문학과 교수), 金榮(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李榮憲(경제/70-78 모교 교수)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커다란, 李榮憲(한국학중앙연구원), 기무라 미츠히코(아오야마가쿠인대) 등의 외국 학자들도뿐만 아니라, 李榮憲(한국학중앙연구원)이 논문에서부터 시작하여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필자였던 학자들(총 28명)까지 참여함으로써 이념을 떠나 역사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책세상/전 권 3권 32,000원 / 29,000원)

공연

吳應淑 첼로 독주회

—3월 23일 금호아트홀



진수를 선보인다. 이번 吳應淑은 김용태 씨의 '시드는 꽃의 아름다움'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고 카사노,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 문의: 예인대솔기획 586-0945)

수원대 교수인 첼리스트 吳應淑(기악/71-75) 농민이 독주회를 열며 현대음악의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2006년 1월 납부자/연회비: 이사(05. 12. 2~12. 20)·일반(05. 11. 29~12. 13)
원내 숫자: 입학년도(미학연시 졸업년도)-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尹勳熙=50만원
△회회장 李在植=50만원

상임이사

△崔永喆 문리대동창회장=20만원
△南正明 AMPPP동창회장=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홍섭 공대9
△권영세 법대9 △김진호 법대9
△김창훈 법대9 △김정범 차대9
△김종기 사대9 △문국진 의대9
△박영애 자연9 △박종덕 법대9
△안영수 공대9 △양소호 사대9
△오서채림 문리9 △이경주 농대9
△이성배 문리9 △이승용 의대9
△정원호 사대9 △정희준 법대9
△진상원 법대9 △진송자 미대9
△최선진 사대9 △함정호 법대9

(일반) △강준원 농대9
△고재홍 사대9 △고대석 ALM2
△권경배 의대9 △김동은 IIP4
△김우정 자연9 △김 랑 농대9
△김갑주 AMP9 △김경미 가경9
△김경호 AIP9 △김명주 자연9
△김무연 공대9 △김석년 미대9
△김석현 사대9 △김성기 농대9
△김계석 농대9 △김수명 사회9
△김수우 경양9 △김예리 차대9
△김영구 차대9 △김영삼 법대9
△김영진 공대9 △김영희 공대9
△김완규 AIP13 △김옥중 공대9
△김위배 문리9 △김유경 공대9

△김재진 공대9 △김중구 AIC9
△김종남 인문9 △김진이 용대9
△김찬나 의대9 △김태창 법대9
△김태희 생리9 △김현수 SGS9
△김현보 경양9 △김홍렬 SGS9
△김홍재 의대9 △나종관 AMP9
△남준환 AMP9 △분정원 용대9
△박동만 공대9 △박무익 문리9
△박민여 미대9 △박봉식 문리9
△박석희 AMP9 △박수환 상대9
△박순운 문리9 △박순조 농대9
△박용호 문리9 △박은호 간호9
△박재영 ALM9 △박재현 SGS9
△박정환 용대9 △박준대 GLP6
△박진영 사대9 △박진우 상대9
△박태영 ALM9 △박정환 법대9
△배서필 법대9 △변유식 농대9
△부현인 미대9 △서계숙 용대9
△서봉수 공대9 △신경래 사회9
△서익식 AMP9 △선별수 사회9
△손진욱 의대9 △신용서 공대9
△신원중 사대9 △신원수 공대9
△신희철 의대9 △신재철 문리9
△안광열 공대9 △안복희 미대9
△안성수 법대9 △양용철 공대9
△양기선 수의9 △영희고 공대9
△오민규 자연9 △오승모 공대9
△오자수 공대9 △원용택 농대9
△원종욱 경양9 △유재민 농대9
△유정현 의대9 △유진임 사회9
△유연일 공대9 △윤삼국 의대9
△윤서선 수의9 △윤수경 경양9
△윤여하 의대9 △윤호진 공대9
△윤진우 사회9 △이강원 의대9
△이경태 상대9 △이근장 의대9
△이기원 공대9 △이남수 의대9
△이동준 사회9 △이범수 사대9
△이병현 AMP9 △이성민 법대9
△이상영 자연9 △이상현 의대9

△이성이 용대9 △이세영 공대9
△이승희 공대9 △이세종 APC9
△이영재 경양9 △이영우 의대9
△이용우 AIP9 △이용일 의대9
△이용준 미대9 △이용환 공대9
△이원범 공대9 △이은우 사회9
△이인연 공대9 △이정지 용대9
△이종서 공대9 △이우성 대9
△이찬호 농생9 △이정업 수의9
△이태원 의대9 △이영숙 가경9
△이철우 약대9 △이화연 인문9
△임대현 공대9 △임배수 공대9
△임종현 AMP9 △임판식 의대9
△임병하 SGS9 △장동일 공대9
△장동은 행9 △장보현 본대9
△장종호 문리9 △장호경 농대9
△장화승 용대9 △전노영 회9
△진동원 사대9 △진중현 사대9
△정계영 용대9 △정광호 사회9
△정규남 용대9 △정동근 의대9
△정병배 문리9 △정선욱 농생9
△정선지 AIP9 △정성국 농생9
△정성수 사대9 △정진식 대9
△조 양 용대9 △조각주 상대9
△조규형 농대9 △조완원 AMP9
△조재영 농대9 △조종현 법대9
△조희성 사대9 △주미희 AIP9
△차재연 경양9 △차재호 문리9
△채수신 AMP9 △채택범 GLP9
△최 승 용대9 △최경식 사대9
△최광열 공대9 △최규하 공대9
△최병민 의대9 △최봉성 차대9
△최성이 공대9 △최예경 미대9
△최원정 용대9 △최재진 법대9
△최종서 GLP4 △최화길 AMP9
△최희국 AIP9 △탁동연 사회9
△한용택 자연9 △한현숙 약대9
△홍서영 용대9 △홍석기 AIC9
△홍지진 경양9 △홍호근 문리9

이 사

◆인문대 △김복목9 △배준동9
◆사대 △박규환9 △홍재우9
◆공대 △김규환9 △김재익9
△박신철9 △신준석9 △신종식9
△오창석9 △이순병9 △정경식9
△조남익9 △자택선9
◆농대 △김종현9 △백연수9
△사병현9 △문자경9 △이원환9
△장규섭9
◆문리대 △고서운9 △정영의9
◆미대 △김재용9
◆법대 △김두표9 △김상철9
△김승연9 △나정욱9 △서창준9
△이규환9 △이우철9 △이주영9
△한영광9
◆사대 △김홍섭9 △박남기9
△원해영9 △유서영9
◆상대 △김병식9 △김호식9
△남경우9 △박병준9 △배정운9
△변병주9 △신대평9 △이동현9
△이재욱9 △이정식9 △이주희9
△조문규9 △한수길9
◆의대 △오연준9 △이유재9
◆음대 △김진희9 △이준복9
△장우영9
◆의대 △문대환9 △신동희9
△한성준9
◆치대 △이민관9 △이성식9
◆대학원 △내병민9
◆보대원 △김상재9 △민정기9
◆신대원 △안병진9
◆행대원 △권문용9 △조한우9
◆AIP △김서권9

일 반

◆인문대 △박지훈9 △이영기9

△이효삼9 △신형준9
◆사대 △장진구9 △김병현9
△김정근9 △남규현9 △류태선9
△박희택9 △변영호9 △서종일9
△손현덕9 △송수현9 △송호준9
△오규환9 △이만우9 △장병승9
◆자연대 △구형노9 △리남성9
△김상규9 △김승모9 △김승우9
△김태원9 △서승준9 △성재영9
◆자연대 △이기훈9 △이우일9
△정원석9 △정운영9 △주영지9
△최학규9
◆간호대 △김선영9 △김희진9
△송현숙9 △장병기9
◆경양 △김지진9 △김준호9
△박종현9 △우기철9 △이재익9
△황지선9
◆공대 △김재현9 △김상우9
△강상희9 △경종민9 △고영민9
△김기원9 △김기환9 △김동진9
△김동욱9 △김민수9 △김봉중9
△김성철9 △김호진9 △김원석9
△김영동9 △김원철9 △김우광9
△김일영9 △김재준9 △노재호9
△김일환9 △박상수9 △박수환9
△박영선9 △박준배9 △박홍민9
△사인원9 △석성봉9 △손의석9
△송병배9 △송승기9 △송재영9
△신승철9 △안상준9 △안재우9
△양홍준9 △양치호9 △오명환9
△유진남9 △유근모9 △유영환9
△이교식9 △이대현9 △이동관9
△이석우9 △이성관9 △이성기9
△이세호9 △이승환9 △이연진9
△이원준9 △이인재9 △이종각9
△이종원9 △이권민9 △임진백9
△장순백9 △장우나9 △장재건9
△조신용9 △조안재9 △조정규9
△조지규9 △차상훈9 △최기명9
△최길영9 △최병기9 △최연상9
△최지용9 △최은용9 △최진수9
△한태희9 △한영호9 △허해만9
△홍석준9 △황국동9 △황수우9
△황의대9
◆농대 △김홍환9 △권문규9
△김 현9 △김병관9 △김봉수9
△김영일9 △김요준9 △김한석9

△귀환수출 △금회철출 △금회철출
△류범철출 △박재철출 △송광익출
△심병철출 △오승남출 △오원석출
△우종원출 △윤병철출 △유철수출
△이근철출 △이동우출 △이동원출
△이선기출 △이문옥출 △이종석출
△정준희출 △조선희출 △조태희출
△자귀원출 △최용철출 △홍성준출
△홍준철출 △홍호열출

◆문리대 △강신보출 △곽민철출
△김명철출 △김병철출 △김철지출
△서열희출 △송철기출 △유승은출
△이상철출 △이승환출 △이자승출
△이만남출 △임재욱출 △장병림출
△전영애출 △최희관출 △채 훈출
△최영철출 △최재원출 △한명윤출

◆미대 △김광남출 △김병수출
△김영철출 △김지영출 △김지영출
△김만준출 △김진우출 △박귀현출
△서해윤출 △안재욱출 △윤지현출
△이기원출 △이명기출 △이주원출
△이학숙출 △이혜경출 △전석진출
△정우원출 △주성철출 △하진부출
△홍광원출 △황명욱출 △홍의정출

◆법대 △곽영욱출 △김동식출
△김진수출 △김영선출 △김유배출
△김철수출 △김의식출 △김정섭출
△김희태출 △박재현출 △박철순출
△박호성출 △신진식출 △문지애출
△이근찬출 △이선종출 △이수경출
△정병덕출 △정성희출 △정복출출
△최영기출 △한정규출 △황인철출

◆사대 △고옥순출 △김영석출
△김종희출 △김진홍출 △박영희출
△박종태출 △박진홍출 △박준진출
△박희문출 △서국연출 △서정출출
△심병철출 △서하경출 △오갑근출
△윤학진출 △이동준출 △이명근출
△이용삼출 △이원태출 △이현선출
△정성기출 △조계석출 △최선길출
△최희배출 △황연진출

◆상대 △김영민출 △김용익출
△김정태출 △김홍배출 △박우영출
△박진국출 △백은생출 △유춘식출
△이동재출 △이봉환출 △한정복출
◆생리대 △권병우출 △김소오출
△성미애출 △오광숙출 △이상의출

◆수의대 △박기종출 △김원선출
△남기철출 △박근호출 △오남선출
△이강철출 △이운선출
◆연대 △김길수출 △김부근출
△김영준출 △박은유출 △박오영출
△오우경출 △이길재출 △이영수출
△이정선출 △이해운출 △조경남출
◆음대 △구경은출 △김경희출
△김종필출 △김지연출 △박경미출
△박진경출 △임해숙출 △유은희출
△윤이남출 △윤진영출 △이영진출
△이기선출 △이영미출 △이유진출
△장희수출 △정영안출 △성근지출
△조영문출 △조영호출 △조현정출
△최소현출

◆의대 △강석원출 △강성후출
△고태웅출 △곽계혁출 △구본술출
△김계만출 △김기하출 △구지은출
△김석기출 △김광주출 △김재영출
△김재성출 △김장기출 △김현정출
△김현주출 △김현진출 △김희영출
△박은숙출 △박재덕출 △박정식출
△변종희출 △석정우출 △송현호출
△신익수출 △신석원출 △안요섭출

△오세유출 △유정주출 △유진호출
△유춘식출 △이광진출 △이동태출
△이상민출 △이원기출 △이문영출
△이종희출 △이정환출 △이찬세출
△이태수출 △이태연출 △이혜영출
△이영진출 △위강은출 △임수덕출
△위수택출 △왕은산출 △정송기출
△정진엽출 △정진욱출 △정희원출
△조안규출 △조현근출 △최 현출
△최현석출 △허 훈출 △황승식출

◆치대 △곽경호출 △곽지윤출
△김기수출 △김동화출 △김민진출
△김성은출 △김진호출 △김연호출
△김영서출 △김우영출 △김유진출
△김인규출 △김정태출 △김종태출
△김종호출 △김지태출 △김태경출
△김태성출 △김현재출 △김혜성출
△김희규출 △문준남출 △문정주출
△박삼윤출 △박은연출 △박철성출
△박부규출 △박하종출 △서기환출
△서문석출 △손소영출 △신영민출
△안성모출 △임기정출 △염성환출
△오상규출 △유영주출 △윤경준출

△이명준출 △이봉호출 △이성민출
△이철민출 △이태훈출 △이홍상출
△임남수출 △임미경출 △임승호출
△임진원출 △전병준출 △전성원출
△정목규출 △정의종출 △정철호출
△정규수출 △조병훈출 △조영진출
△조재형출 △조효선출 △주병지출
△진보형출 △채영재출 △최지갑출
△황준영출 △하정선출 △한병희출
△한영복출 △허 식출 △호창진출
△황기선출

◆대학원 △강삼덕출 △고영필출
△고진석출 △김경남출 △김도기출
△김병욱출 △김문성출 △김종필출
△김진우출 △김정원출 △김기태출
△문재석출 △박영환출 △박용희출
△박은수출 △박용정출 △손진라출
△왕일석출 △왕정원출 △유연철출
△이상현출 △이우승출 △이주영출
△임준택출 △정기영출 △정문도출
△주정돈출 △최현석출

◆경대원 △김덕규출 △전영길출
◆교대원 △정용술출
◆보대원 △김문수출 △도순자출
△분석환출 △박대근출 △박지영출
△서용석출 △서인선출 △유일준출
△이의진출 △정삼조출 △조성준출
△조순희출 △함은우출 △황석찬출
◆신대원 △김진홍출 △노재성출
◆협대원 △김재우출 △김종원출
△김진용출 △김현준출 △박경태출
△서성원출 △이경태출 △이기권출
△이영태출 △전영욱출 △한일주출
△한호선출 △하필국출

◆원대원 △김기연출 △김수철출
△박하목출 △송정재출 △이준호출
◆AMP △강지훈출 △고교수출
△금승호출 △김광수출 △김세경출
△김세태출 △김수복출 △김정태출
△김중권출 △김진배출 △노연봉출
△리종익출 △류동연출 △박길수출
△박근현출 △박민준출 △타종국출
△배진호출 △서영철출 △최조경출
△신 함출 △신정훈출 △신말남출
△양용석출 △왕기환출 △유정열출
△유국연출 △유영범출 △이건영출
△이성균출 △이원준출 △이재규출

△이재원출 △이찬국출 △이성현출
△임충현출 △장기봉출 △전병열출
△정건택출 △정근화출 △정희운출
△정종태출 △정희석출 △조금태출
△조갑선출 △조사민출 △조완재출
△최근우출 △최하철출 △최영석출
△최창환출 △하종근출 △한영우출
△한이수출 △함윤상출 △하태범출
◆AIP △강호선출 △고경택출
△권오열출 △김복근출 △김종현출
△나기환출 △문기석출 △문영석출
△박삼진출 △박기영출 △박상훈출
△박윤소출 △박형국출 △서기탁출
△서대명출 △신희환출 △오태오출
△육남선출 △유정석출 △이갑순출
△이경구출 △이상호출 △이윤희출
△이주연출 △이태희출 △임박태출
△임한배출 △전기환출 △노동국출
△조병제출 △조우정출 △최영우출
△최정리출

◆ACAD △권영호출 △김영광출
△김종식출 △김철주출 △김태원출
△최희석출 △박봉근출 △박인복출
△송상현출 △안준태출 △우종현출
△원광호출 △이규정출 △이문영출
△이영훈출 △장오경출 △정현희출
△조강호출 △최광수출 △최상철출
△홍정선출 △황상규출

◆ABP △강태원출 △고광민출
△관지석출 △김종기출 △박원욱출
△박인규출 △신연식출 △삼상범출
△유용우출 △이 명출 △이수원출
△이준기출 △정공준출 △최용원출
◆SGS △강백석출 △곡광준출
△김승규출 △김동근출 △박세진출
△박기석출 △이미원출 △이성민출
△황범돈출

◆CHON △신경주출 △이희연출
◆APC △강기성출 △김진동출
△박덕수출 △왕기성출 △이철주출
△정만모출 △정필무출 △홍영주출
△황수경출
◆HPM △김영호출 △노동일출
△이삼복출 △이정분출 △이종열출
△이창훈출 △임원호출 △정승환출
△정재규출 △한 훈출
◆AMPP △강병수출 △김인식출

△박기석출 △방석관출 △신석훈출
△유호박출 △이경용출 △정종수출
◆AIC △곽동석출 △나경태출
△박우진출 △안기수출 △윤영석출
△이경호출 △이만희출 △이세현출
△이영주출 △이해철출 △정광영출
△정재규출 △조은석출 △황기춘출
◆AFB △장재승출 △최병호출
◆AMPFR △김명준출 △김진현출
△김일동출 △김재성출 △김재원출
△김철석출 △김희수출 △송영주출
△유경희출 △유관영출 △이동욱출
△이유민출 △이재원출 △조경희출
◆ACFMP △고문영출 △김기봉출
△김배환출 △김성태출 △김성근출
△김지호출 △김수경출 △김순진출
△김영철출 △김용국출 △김립태출
△김재연출 △김정현출 △김태용출
△김희준출 △노의태출 △박근태출
△박영규출 △박영기출 △박희보출
△성기환출 △소소재출 △윤영모출
△오우석출 △유주원출 △윤재광출
△윤우호출 △이근석출 △이동열출
△이박순출 △이봉근출 △이영길출
△이재형출 △이종수출 △이종훈출
△이준근출 △임원식출 △임진택출
△장영준출 △전관광출 △전정창출
△정성필출 △정원국출 △정희배출
△조종수출 △최병환출 △최영호출
△한민배출

◆GLP △강덕수출 △김연호출
△김용상출 △김하필출 △박성철출
△석수경출 △신동욱출 △염영복출
△유영연출 △이동훈출 △이병현출
△정지병출 △채수현출 △최문성출
△최승락출 △홍기영출

분 담 금

◆중국 천진지부 30만원

1 월 개 :	78,706,108원
평생회비 :	52,415,702원
입 회 비 :	110,000원
총 계 :	131,231,810원

기타 & E-acc Design : HAWOCHS, V